

수시연구 2016-03

원양어업 글로벌인증제 도입방향 연구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SC Certificate in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2016. 11.

장홍석 · 윤재웅 · 백진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장 홍 석: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2절 3절, 제3장 1절,
제4장, 제5장

〈연구진〉

윤 재 응: 제2장 1절

백 진 화: 제3장 1절, 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 수 용 (콘트롤유니온 이사)

장 영 수 (부경대학교 교수)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연구감리자

류 정 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원)

홍 현 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원)

발간사

우리 원양어업은 1960년대부터 해외어장으로 진출하여 수산물의 수출 및 외화획득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초반에 이끈 주인공이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원양어업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확산된 국제해양법(특히,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의해 1990년대부터 축소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출전략산업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수산업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00년대에 들어와 글로벌 수산시장의 확산 체계는 수산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끌어모아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수산물을 보내는 글로벌 공급자 주도시장 구조 하에 있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구조는 EU, 북미 등과 같은 주요 수요국의 실수요자(바이어, 유통기업, 소매기업 등)들이 소비자들의 친환경·친생태·친지구적 의향을 중요시하면서 글로벌 수요자 주도 시장구조가 부상한다. 즉, 기존 소비자들의 요구는 본인이 먹는 수산물이 안정하고 위생적인 것에 그쳤다면, 작금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것은 꺼린다는 ‘공정’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식품 위생의 대표적인 인증제였던, HACCP, ISO22000 등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MSC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인증제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우리의 원양어업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여전히 수산분야의 최대 수출업종이다. 태평양의 가다랑어는 통조림 원료로 수출되어 EU나 북미 시장으로 나가고 있고, 포클랜드의 오징어는 스페인, 이탈리아로 직수출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어 EU나 북미로 재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원양어업에 MSC와 같은 글로벌인증제 도입은 여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일부 수산기업에서 MSC 등의 친환경 글로벌인증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육상 가공 분야에 그치고 있다. 만약, 주요 수산물 수입국(선진소비국)에서 MSC에 대한 인증 요구가 확산될 경

우에 수출 중심의 우리 원양어업계에 불어올 영향은 거의 모라토리움의 수준에 이를지도 모른다. 물론 내수 반입되는 원양어획물은 일정 기간 존속이 가능할지 몰라도 내수 반입만으로 우리 원양어획물을 판매 혹은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동 연구는 우리 원양어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인증제의 대표격인 MSC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특히, 기업 규모 면에서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보이는 우리 원양어업계의 설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MSC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이 우리 원양어업체들을 압박하는 요인이었다. 정부와 원양어업계는 글로벌 수산시장에서 수산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수요자 니즈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우리 원양어업계에 MSC 도입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 보고서는 MSC 도입에 있어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간접적인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원양어업계에서도 해외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동 보고서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기를 적극 권장한다.

2016년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양 창 호

목 차

연구성과 요약	i
---------------	---

Executive Summary	iv
-------------------------	----

제1장 서 론	1
---------------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

2. 연구의 목적	3
-----------------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

1. 범위	3
-------------	---

2. 방법	4
-------------	---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선행연구	5
--------------------------	---

1. 추진체계	5
---------------	---

2. 선행연구	5
---------------	---

제2장 원양어업 현황과 위기	9
-----------------------	---

제1절 원양어업의 현황	9
--------------------	---

1. 생산 현황	9
----------------	---

2. 수출 현황	15
----------------	----

제2절 원양어업의 위기	18
--------------------	----

1. 생산구조의 악화	18
-------------------	----

2. 경영성과의 악화	20
-------------------	----

3. 국제사회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23
---------------------------	----

제3절 시사점	25
---------------	----

제3장 글로벌인증제 현황과 원양업계의 인식 26

제1절 글로벌인증제 현황 26

1. CODEX 26
2. HACCP 34
3. ISO 22000 39
4.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41

제2절 원양어업체의 글로벌인증제(MSC) 도입 인식 및 수요조사 52

1. 수요조사 개요 52
2. 수요조사 분석결과 53

제4장 글로벌인증제(MSC)의 도입 방안 67

제1절 기본방향 67

1. 원양어업으로의 우선 도입 필요성 67
2. 목표 68

제2절 지원근거 69

제3절 사업내용 70

1. MSC 도입 지원 70
2. MSC 도입에 따른 사후조치 72
3. MSC 도입제 공동 신청 도모 74
4. 기대효과 76

제5장 결 론 78

참 고 문 헌 81

부 록 83

표 목 차

〈표 2-1〉 원양어업의 해역별 생산량 및 생산어종	11
〈표 2-2〉 원양어업의 해역별 업종별 출어현황	12
〈표 2-3〉 선령별 업종별 어선척수	13
〈표 2-4〉 연도별 아국 선원 현황	14
〈표 2-5〉 연도별 원양어선 외국 선원 현황	14
〈표 2-6〉 원양어업 연도별 업종별 수출실적	16
〈표 2-7〉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17
〈표 2-8〉 연도별 원양어업체 종사자 수 추이	19
〈표 2-9〉 우리나라 원양어업체의 규모별 손익의 관계 추이	20
〈표 2-10〉 우리나라 원양어업체의 규모별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추이 ..	21
〈표 3-1〉 CODEX 규격	29
〈표 3-2〉 수산식품의 CODEX 기준 규격 채택 현황	30
〈표 3-3〉 HACCP와 기존 위생관리 체계의 비교	35
〈표 3-4〉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적용 대상식품	37
〈표 3-5〉 HACCP을 도입한 주요 선진국의 현황	38
〈표 3-5〉 HACCP을 도입한 주요 선진국의 현황	39
〈표 3-6〉 ISO 9001과 ISO 22000의 비교	40
〈표 3-7〉 HACCP와 ISO 22000의 비교	40
〈표 3-8〉 MSC 어업인증 평가 절차	43
〈표 3-8〉 MSC 어업인증 평가 절차	44
〈표 3-9〉 친환경조업 인증제도 MSC 인지도 여부	54
〈표 3-10〉 수산 분야의 국제 인증제도(MSC 등) 관심 및 대비 정도 ...	55
〈표 3-11〉 국제 인증제도(MSC 등) 도입 계획이 필요한 이유	57
〈표 3-12〉 국제 인증제도 대비 어려움	59
〈표 3-13〉 원양업계의 대정부 지원 수요	63

〈표 4-1〉 원양어업으로 MSC 도입의 법적 근거	70
〈표 4-2〉 MSC 인증제 도입의 전제	71
〈표 4-3〉 MSC 인증제 지원액의 연차별 추이	72
〈표 4-4〉 원양어업 관련 해양수산부 예산(2016년)	7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5
〈그림 2-1〉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10
〈그림 2-2〉 어종별 생산량 증감 및 비중 추이	11
〈그림 2-3〉 해역별 생산 추이	12
〈그림 2-4〉 2014년 원양어선 선원 현황	13
〈그림 2-5〉 원양어업의 어선척수와 기업체 수 추이	19
〈그림 2-6〉 다랑어 어업의 글로벌 SCM 구조	22
〈그림 2-7〉 오징어 어업의 글로벌 SCM 구조	23
〈그림 3-1〉 CODEX 조직체계	27
〈그림 3-2〉 CODEX 조직	28
〈그림 3-3〉 CODEX 규격제정 절차(일반절차)	29
〈그림 3-4〉 CODEX 규격제정 절차(신속절차)	30
〈그림 3-5〉 HACCP의 의미	35
〈그림 3-6〉 HACCP 7원칙 12절차	36
〈그림 3-7〉 MSC 인증 경로	41
〈그림 3-8〉 MSC 어업인증 표준 3가지 원칙	42
〈그림 3-9〉 MSC 어업인증 평가 절차(이의제기시)	45
〈그림 3-10〉 MSC CoC인증 표준 5가지 원칙	46
〈그림 3-11〉 MSC 어업인증 현황	47
〈그림 3-11〉 MSC CoC인증 현황	48
〈그림 3-12〉 선진국과 개도국의 MSC 인증 비율(%)	49
〈그림 3-13〉 수요조사 개요	52
〈그림 3-14〉 글로벌인증제 대비 어려움	58
〈그림 3-15〉 원양업계의 대정부 지원 수요	62
〈그림 4-1〉 원양산업협회 조직도와 MSC 공동도입의 효과	75

연구성과 요약

원양어업 글로벌인증제 도입방향 연구

1. 연구의 목적

- 글로벌 수산시장에서 친환경·친생태계·친지구적 인증제의 확산에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원양어업계에 글로벌 인증제의 대표 격인 MSC 도입 필요성 증대
- 이에 동 연구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성 확보와 시장 대응을 위해 글로벌인증제를 우리 원양어업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임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기초 분석	- 글로벌인증제의 종류와 MSC의 현황	- 관련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글로벌인증제와 관련된 내용 중 MSC에 대한 조사는 해외출장의 한계로 국내외 문헌조사 등으로 대체
설문 조사	- 우리 원양어업체를 대상으로 MSC의 인식도, 필요성 등을 설문 조사	- 원양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MSC의 인식 정도, 도입 필요성을 실제 원양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정책 도입에 있어서 실수요 파악
전문가 자문	- 국내의 MSC 전문가를 대상으로 MSC에 대한 원고 및 자문 실시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	- MSC의 인증 과정, 비용, 사례 등의 자문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글로벌 수산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증제의 대표격인 MSC를 수출 비중이 높은 원양어업에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최초의 연구임
-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성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의 수요처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인증제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정책적으로 즉시 도입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우리 원양어업에 새로운 글로벌 인증제(MSC)를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으로는 MSC를 요구하는 실수요처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으로는 MSC의 확산이 일반화될 경우에 원양어획물 판매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함
- 우리 원양어업계에 MSC 도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와 융자)임
-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에 사용되는 비용(동법 제26조 1항 2호)이 이에 해당함
- MSC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2016년 실제 원양조업을 수행한 원양기업 48개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율 30%를 적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율 30% : 23억 7,600만 원(업체별 4,950만 원 지원)
- MSC 도입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조치 등이 필요함
- 현재, 원양어업 지원 중에서 MSC 도입에 따라서 발생할 사후조치는 원양어선현대화사업이 있음
- 따라서 MSC 도입을 한 원양어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선현대화사업에 정책 지원을 배려할 수 있음

2) 정책적 기여

- 우리 원양어업체에 MSC 인증을 받기 위한 법적 근거, 자원 투입 등의 정책 수립안 제안

3) 기대효과

- 우리 원양어업의 새로운 글로벌 시장 수요 대응
- 우리 원양어업의 중장기적 지속성 확보 가능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SC Certificate in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1. Purposes

- Certification of eco-friendliness, pro-ecosystem and pro-Earth has been spreading in the global fisheries market. As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is highly dependent on export, it needs to introduce the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certificate, one of representative global certifications.
- Under the circumstance, this study aims to devise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global certificate both to secure sustainability of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and respond to market changes.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Feature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 for selection
Basic analysis	- Types of global certification systems and status of the MSC	- Literature review -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 To conduct domestic/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 (due to limitations in overseas business trip)
Survey	- Survey with Korean companies on the MSC awareness and needs	- Survey with Korean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 To conduct survey with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on their awareness on the MSC and needs for introduction - To identify actual needs before introducing policies
Expert consultation	- To conduct written/ face-to face interview with the MSC experts at home and abroad	- Expert advice and feedback	- To consult about the MSC certification procedure, costs and actual cases

2) Features

- This study is the first of its kind as it devises measures to introduce the MSC (representative global certificate) to the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which highly depends on export amid global trends for certification.
- While the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shows limitations in its sustainability, global certification with new concept is widely spreading in the global market.
- In response, the study presents policy plans for immediate introduction of such certificates.

3. Results

1) Summary

- Global certificates (the MSC) are expected to become essential for the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 In the short term, the certificate helps to secure actual markets (end users) which demand the MSC.
- In the mid- and long-term, general requirement of the MSC helps to secure continuous sales of deep-sea fishery products.
- The legal foundation to support introduction of the MSC *is the Overseas Fisheries Development Act Article 26 (Subsidies and Loans)*.
- *Article 26, provision (1-2) says;*
(1) Wher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companies, the Government may subsidize the following expen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Expenses incurred in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n safety control;
- The study calculates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to introduce the MSC to 48 Korean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which actually carried out the business in 2016. 30% subsidy rates are applied.
- When 30% subsidies are applied: KRW 2,376 billion (KRW 49.5 million per company)

- Introduction of the MSC requires subsequent measures if necessary.
- Introduction of the MSC involves one of the existing supports for overseas fisheries industry which might require subsequent measures: modernization of deep-sea fishing vessels.
- Therefore, the policy support for vessel modernization can be firstly given to overseas fisheries companies which introduce the MSC.

2) Policy Contribution

- The study presents legal foundation, measures to inject financial resources and policy preparation for the MSC certification by Korean overseas fishing fisheries companies.

3) Expected benefits

- The study helps the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to prepare itself to changing demand of the global market.
- The study contributes securing mid- and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overseas fisheries indust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회복세를 반복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추세에 들어서 있다. 2001년 약 74만 톤을 생산하여 고점을 형성한 뒤 감소를 시작하여 2004년 약 50만 톤 수준의 저점을 지나 2007년 약 71만 톤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1년 약 51만 톤 수준으로 저점을 형성한 뒤 2015년 약 58만 톤을 생산했다.¹⁾ 반면에 원양어업 생산액은 2005년 8,458억 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조 6,554억 원으로 최고 생산액을 기록하였지만,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2015년에는 1조 237억 원으로 나타났다.²⁾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의 생산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수산물 수출에서 원양어업은 여전히 높은 공헌도를 보이고 있다. 원양어업의 생산액 중에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는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6% 정도 수준이다. 원양어획물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어종은 주로 다랑어류와 오징어로서 이들은 태국, 중국, 스페인 등으로 수출(원료)되어 재가공을 통해 참치캔(다랑어류), 오징어 가공품(오징어) 등의 상품으로 북미, EU 등의 선진국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선진국의 수요시장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글로벌인증제를 도입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일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인증제는 과거의 HACCP, ISO 시리즈와 같이 위생 및 품질의 인증을 더해

1) 통계청 KOSIS, 어업생산동향

2) 전계서

원어 생산과정의 공정성(친환경적, 친생태적, 지속성), 노동 환경과 노동 복지의 정도 등 수요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중요시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미국의 월마트는 수산물의 90% 이상을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이하, MSC) 인증 수산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얏트 호텔은 2018년까지 취급 수산물의 약 15%에 대해 MSC 혹은 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이하 ASC) 인증 수산물로 대체할 예정이며, WWF(World Wild Federation, WWF)와 함께 “WWF-Hyatt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책”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다.³⁾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햄버거 기업인 맥도널드는 2012년에 러시아에 명태 필렛 사업 진출을 도모했으나 러시아 어선의 낮은 MSC 인증 비율로 인해 진출을 포기한 바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히 수산분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커피의 공정무역 등), 스포츠 용품(축구공 생산에 어린이 노동 착취 등)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원양어업은 IUU 어업과 관련하여 예비지정국으로 지정되는 등의 힘든 시기를 겪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제외국의 시선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3년 11월 EU는 한국의 원양어업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고, 한국 정부와 업계의 노력 끝에 2015년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에서 벗어났다.⁴⁾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IUU 원양어업에 대한 조치는 IUU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수입 수산물 혹은 그 가공품에 대한 글로벌인증제 도입이 확산된다면, 이는 우리 원양어업에게 IUU와 같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MSC로 대표되는 글로벌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원양업계에 중장기적인 지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 원양어획물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글로벌인증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 수산물 수출에서 현재의

3) 한국 내에서도 동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음.

4) 한국 정부는 IUU 어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수산물 가액 5배,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원양산업발전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음

원양 어획물 수출 공헌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 원양어업에 글로벌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 MSC 등과 같은 글로벌인증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내 연구에서는 깊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인지, 개별 업체가 인증 받으면 되는 것인지 조차 현재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셋째, 이를 원양어업계가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책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넷째, 원양어업계에서 글로벌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정부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동 연구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성 확보와 시장 대응을 위해 글로벌인증제를 우리 원양어업에 도입하는 방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범위

현재 수산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글로벌인증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동 연구 보고서에는 위생, 안전, 품질을 중시한 과거의 HACCP이나 ISO시리즈보다는 수산자원, 친생태계, 친지구적 인증을 보다 중시하는 확장된 글로벌인증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우리 원양어업계에서도 일부 기업으로부터의 수요가 발생한 MSC를 그 주요 대상으로 한다.⁵⁾

MSC는 어선어업에 모두 도입 가능하지만, 동 연구에서는 원양어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5) ASC는 양식어업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연구에서는 구체화하지는 않음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MSC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에서는 원양 어획물 중에서 다랑어류, 오징어류를 대상으로 현재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는 전제를 적용한다. MSC 도입에 따른 수출 증가는 기대효과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MSC의 도입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 설문조사를 통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샘플비중을 전체 원양어업체 수에 반영하여 최종적인 정책 예산액을 산출한다.

2. 방법

동 연구 수행을 위해서 문헌조사, 원양어업과 관련한 일반 현황 통계분석, 수요조사(원양어업체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국내 MSC 대행사, 학계)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문헌조사는 MSC와 관련한 국내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MSC 도입이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MSC 등의 글로벌인증제가 갖는 의미에 대한 배경적 문헌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국내 문헌은 많지 않아 해외문헌에 의존했다.

수요조사는 우리 원양어업체를 대상으로 MSC의 인지도, 도입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설계, 내용, 결과 등은 본문을 참고 바란다.

일반 현황 통계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생산, 수출, 생산구조(어선 수 등) 등의 현황 추이 등을 분석한다. 주로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KOSIS),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원양산업연감 등을 통해 분석을 수행했다.

전문가 자문은 국내의 MSC 대행사인 컨트롤유니언사를 대상으로 MSC 도입 절차,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자문받았으며, 부경대의 장영수 교수로부터 MSC가 원양어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자문으로 받았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우리 원양어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질의응답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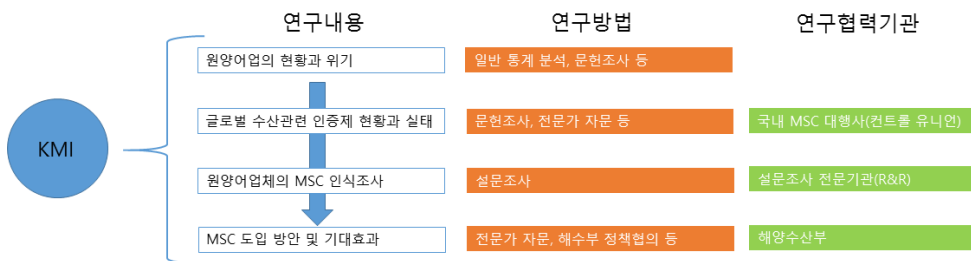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와 선행연구

1. 추진체계

동 연구는 우리 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하 KMI)을 중심으로 하여 동 관련 정책을 수행해야 할 해양수산부의 정책수요, MSC 국내 대행사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동 정책을 2017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정책화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KMI와 주고받았다. 또한 MSC 국내 대행사인 컨트롤유니언과도 정책 도입을 위한 비용, MSC의 내용을 동 연구에 반영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2. 선행연구

동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인증제(MSC)를 원양어업 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글로벌인증제를 어업의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 실태, 성과에 대한 연구문헌은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를 전제로 하여 동 연구의 선행연구는 첫째, 글로벌인증제(MSC)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 문헌, 둘째, 글로벌인증제와 기대성과(식품산업과 양식어업)로 구분하였다.

글로벌인증제, 특히 MSC에 대한 일반론적인 역할론에 대한 문헌을 대표하는 것은 STEFANO PONTE(2012)이다.⁶⁾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와 공동집

단 연구를 통해 MSC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공급, 수요, 일반 소비자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동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제수산물기구 등이 주창한 ‘지속적인 수산업’이 수산자원 자체의 최적 이용에 관심을 두었다면,⁷⁾ MSC의 개념 확산은 수산자원 외에 이를 둘러싼 생태계적 환경을 고려한 ‘지속적인 수산업’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MSC의 평가에 대해서 주목할 내용은 MSC 도입에 따른 기존 경제주체(공급자)의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MSC의 확산이 더딘 이유는 저소득국가의 공급자들이 반발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까지 수산자원은 주로 선진수산물국(선진국)에서 고갈했으며, 저소득 국가들은 최근에 들어 수산자원을 경제자원(수출)으로서 이용하기 시작했을 뿐이고, MSC를 수산물 소비를 주로 하는 선진국에서 주창하는 이유는 저소득 국가의 대선진국 수산물 수출을 막는 비관세 장벽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저소득 국가들의 저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친환경·친생태적 개념이 수산물을 소비하는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MSC와 같은 글로벌인증제의 확산은 수산물 공급측(그것이 저소득국가든 고소득국가든 상관없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MSC의 확산이 국내 식품이나 수산물 공급 측과 연관된 연구는 김창봉(2013)과 서종석(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봉(2013)은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글로벌인증제에 따른 파트너십 요인, HACCP, 식품품질관리, 고객관계관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글로벌인증제의 파트너십의 요인이 식품품질관리, 고객 관리 요인, 기업성과에 정(+)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글로벌인증제에 따른 식품품질의 개선이 고객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인증제는 중요한 경영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6) STEFANO PONTE, The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and the Making of a Market for ‘Sustainable Fish’, JOURNAL OF AGRARIAN CHANGE APRIL 2012, 2012.

7) MSY(Maginal Sustainable Yeild)나 MEY(Maginal Economic Yeild)의 관점

8) 김창봉, 식품산업의 글로벌 인증과 파트너십, 식품품질관리, 고객관계관리 간의 영향관계가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4(5),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3.

서종석(2015)은⁹⁾ 수산업 분야 중에서도 양식어업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식에 대해 국내외의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문헌조사, 실태조사, 최대 유사체계분석모형, AHP 기법을 통해 연구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양식장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동 연구에서는 미래 식품산업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양식어업이 개별 기업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및 품질 보장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양식장 기준은 우리 양식어업의 영세성 등으로 적용이 어렵지만,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인증제 수준의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론, 수요자(소비자) 측의 평가기준이 우리 양식어업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우리 양식어업의 실태적 한계(영세성 등)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인증제에 대한 평가는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국가에 속한 공급자간 순응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이 낮은 국가의 공급자일수록 저항도가 높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연구들이 글로벌인증제의 더딘 확산성 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수요자(국내외 소비자 포함) 측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결론에는 동의를 표했다.

한편, 우리 원양어업에 글로벌인증제 도입을 시도할 경우에는 저항과 순응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소득 수준이 개도국 수준으로 이해됨과 동시에 최근 우리 원양어업계는 원양어업의 IUU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인증제 도입에 대해 제도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종석(2015)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식어업의 영세성이 글로벌인증제 도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는 하나 원양어업체들은 양식어업체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경영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수산분야에서 가장 기업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인증제의 도입이 어려운 것만으로 해석되지는

⁹⁾ 서종석, 수산양식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공학박사 학위논문, 2015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 원양어업체 중에서 MSC와 같은 글로벌인증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도 나오고 있어 정부 정책에서 글로벌인증제 도입에 대한 강제성을 어느 수준으로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원양어업계에 MSC와 같은 글로벌인증제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2장 원양어업 현황과 위기

제1절 원양어업의 현황

1.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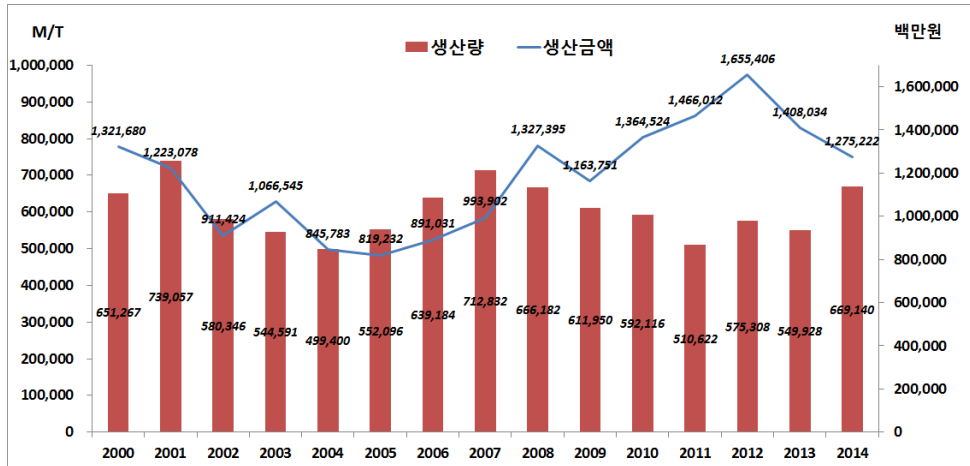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두 번의 사이클을 형성하였다. 2001년 74만 톤을 생산하여 고점을 형성한 뒤 하락하여 2004년 50만 톤 수준의 저점을 지나 2007년 71만 톤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1년 51만 톤 수준으로 저점을 형성한 뒤 2015년 54만 톤 수준을 회복하였다.

원양어업 생산액은 2005년 8,458억 원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조 6,554억 원으로 최고 생산액을 기록하였다. 이후 하락추세를 이어가며 2015년 1조 237억 원을 기록하였다. 원양어업 생산액은 생산량 사이클과 달리 2012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는 어획물의 가격상승에 기인하지만, 생산량이 지속 감소할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액 상승 효과는 사라질 것이다.

원양어업 톤당 생산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40만 원으로 저점을 형성한 이후 2012년 29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4년 톤당 생산금액은 고점대비 34% 하락한 190만 원인데 이는 2012년 이후 가다랑어의 지속적인 생산량유지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재고가 증가하였고, 엔화 환율이 약세 추세를 이어감으로써 우리나라의 일본 다랑어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¹⁰⁾

¹⁰⁾ KMI(2016), 2016 세계전망대회: 2016 원양산업의 전망과 이슈, p.130

〈그림 2-1〉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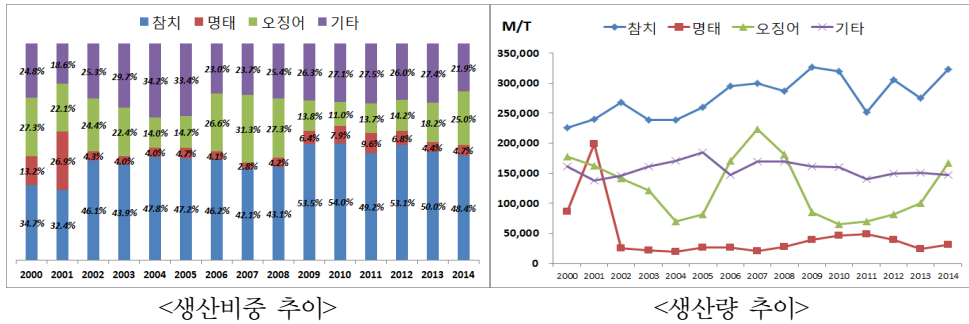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어종별로 생산량 증감 및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참치의 비중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치는 2000년 22만 5,795톤을 생산하며 그 해 원양어획물의 34.7%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2000년 대비 43.4% 증가한 32만 3,762톤을 생산하며 생산량 비중도 48.4%로 확대되었다.

반면 오징어는 생산량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생산비중도 11.0~31.3%까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17만 7,843톤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은 2000년 대비 6.1% 감소한 16만 7,023톤을 어획하며 소폭 감소한 모습이다. 그러나 2004년 6만 9,999톤까지 어획량이 감소하였다가 2007년 22만 3,338톤을 회복, 다시 2010년 6만 5,416톤까지 감소하였다가 2014년 16만 톤 수준을 회복 중에 있어 높은 생산량 변동을 보이고 있다.

명태는 2001년 러시아로부터 민간경매방식으로 북서베링해 쿼터를 대폭 확대할 수 있었으나 2002년부터 정부 쿼터 축소, 민간경매입찰 시 러시아 자국어 선에 대한 우선권부여 등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며 어획량이 2~4.5만 톤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명태의 생산량은 2000년 8만 6,066톤 대비 63.3% 감소한 3만 1,624톤을 기록하였으며 비중은 13.2%에서 4.7%로 1/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그림 2-2〉 어종별 생산량 증감 및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원양어업의 해역별 생산량 추이는 태평양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남빙양, 인도양, 대서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태평양 어장의 생산량은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3년에는 명태, 다랑어 등의 어종에 대한 수요가 줄고, 어황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줄었지만, 2014년에는 수요가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대서양의 생산량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줄었다가 2011년부터 오징어 생산량의 증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전반기 포클랜드 오징어 어획량의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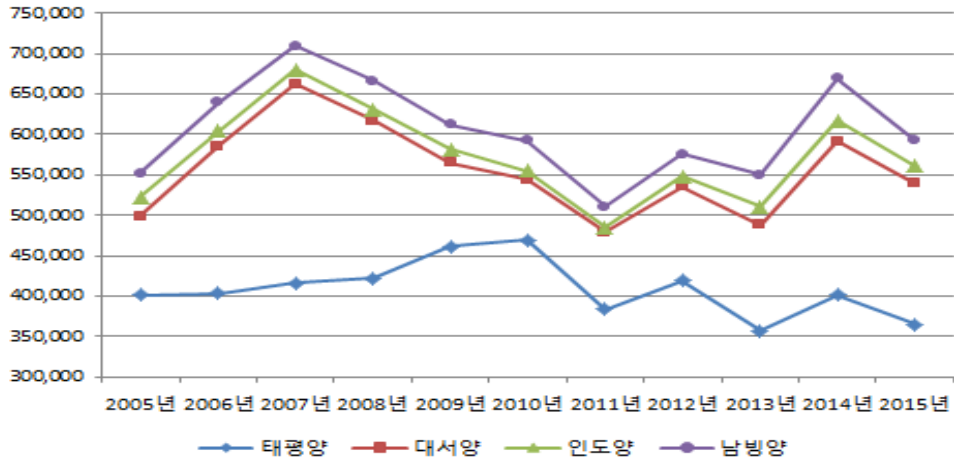
〈표 2-1〉 원양어업의 해역별 생산량 및 생산어종

구 분	주요 생산어종
태평양	다랑어류, 명태, 꽂치, 오징어류
대서양	오징어류, 민어류, 전갱이류, 정어리
인도양	다랑어류, 돔류
남빙양	크릴새우

자료 : KMI(2016), 2016 세계전망대회: 2016 원양산업의 전망과 이슈, p.132

¹¹⁾ KMI(2016), 2016 세계전망대회: 2016 원양산업의 전망과 이슈, pp.131-132

〈그림 2-3〉 해역별 생산 추이



주 : 2015년 생산량 및 해역별 비중 추정치임(미집계된 12월 실적은 최근 10년간('05~'14년) 동기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자료 : KMI(2016), 2016 세계전망대회: 2016 원양산업의 전망과 이슈, p.132

2014년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3대양(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총 330척이 진출해 있다. 태평양은 3대양 출어척수의 63.3%에 해당하는 209척이 조업을 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높고, 대서양은 101척(30.6%)이 조업을 하고 있어 비중이 두 번째이며, 인도양은 20척(6.1%)이 조업하고 있다. 남빙양에는 3척이 별도로 조업 중에 있다.

〈표 2-2〉 원양어업의 해역별 업종별 출어현황

구분	계(척)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계	333	209	101	20	3
참치연승	148	133	6	9	-
참치선망	32	27	1	4	-
기지트롤	84	20	54	7	3
오징어 채낚기	25	-	25	-	-
꽂치붕수망	21	21	-	-	-
기타	23	8	15	-	-

주 : 2014년 말 기준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원양어선의 선령분포를 보면 26~30년이 40.6% 비중으로 가장 높으며 20년 이상된 노후선박이 전체 선대의 90.4%를 차지하여 선박노후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양 주력 선대인 참치연승선과 대서양 주력선대인 기지트를의 선령의 경우 참치연승은 20년 이상 선박이 95%, 기지트로는 92.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지트로는 76.2%가 31년 이상 된 선박들로 노후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표 2-3〉 선령별 업종별 어선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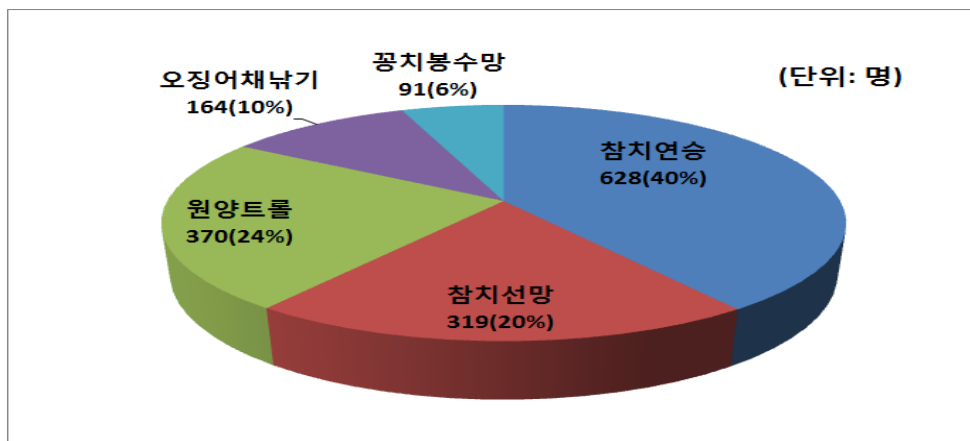
(단위 : 척, %)

구분	총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40년	41년이상
합계	333	11	4	10	7	43	135	92	31
참치연승	148	1	-	2	4	30	101	10	-
참치선망	32	9	4	1	-	2	3	13	-
기지트룰	84	-	-	4	2	2	11	41	24
오징어채낚기	25	-	-	-	-	3	8	12	2
꽁치붕수망	21	1	-	-	-	3	7	9	1
기타	23	-	-	3	1	3	5	7	4
비율	100	3.3	1.2	3.0	2.1	12.9	40.6	27.6	9.3

주 : 2014년 말 기준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그림 2-4〉 2014년 원양어선 선원 현황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2014년 말 기준 원양어선의 선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72명 중 참치연승선에 628명, 참치선망 319명으로 참치 어선에 전체 원양선원의 60.2%가 고용되어 있다. 다음으로 원양트롤 370명(23.5%), 오징어 채낚기 164명(10.4%), 꽁치붕수망 90명(5.7%) 순으로 선원이 분포되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원양어선 국적 선대와 선원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346척 대비 2014년 251척으로 27.5% 감소하였으며 선원 수는 2,535명에서 1,572명으로 38.0% 감소하였다. 반면 동기간 원양어선을 제외한 국적 선대는 7.6% 증가하였으며 선원은 5.5% 감소하는데 그쳐 원양어선 선원 수급 조건이 다른 해운선박에 비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양어선 선원이 전체 선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6.3%에서 2014년 4.2%로 2.1%p 감소하였다.

국내 원양선원에서 외국인 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 59.7%에서 2014년 69.3%로 9.6%p 증가하였다. 다만 외국인 고용 수는 3,766명에서 3,551명으로 5.7%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원양어선의 선대감소에 따른 국내 선원 이탈부분을 외국인 선원이 대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4〉 연도별 아국 선원 현황

(단위 : 척,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원양어선	척수	346	345	338	326	328	312	315	316	308	251
	선원수	2,535	2,339	2,145	1,897	1,928	1,892	2,053	1,981	1,905	1,572
원양어선외	척수	5,930	5,947	6,045	6,141	6,139	6,276	6,360	6,427	6,367	6,380
	선원수	37,641	36,482	36,463	37,105	37,200	36,866	36,945	36,925	36,878	35,553
총계	척수	6,276	6,292	6,383	6,467	6,467	6,588	6,675	6,743	6,675	6,631
	선원수	40,176	38,821	38,608	39,002	39,128	38,758	38,998	38,906	38,783	37,125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표 2-5〉 연도별 원양어선 외국 선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외국인 선원수	3,756	3,719	3,696	3,586	3,435	4,006	4,540	4,647	4,298	3,551
비중(%)	59.7	61.4	63.3	65.4	64.0	67.9	68.9	70.1	69.3	69.3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2. 수출 현황

2014년 원양어획물 수출량은 27만 4,316톤, 수출액은 5억 3,851만 달러로 2000년 대비 각각 2.9% 상승, 0.1% 하락한 수준으로 수출량이 생산량의 41%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2014년 참치어종의 수출량과 수출액은 2000년 대비 각각 37.9%, 7.2% 상승한 17만 6,380톤, 3억 7,58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참치 연승의 수출 감소폭을 참치 선망이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참치는 생산의 약 50%를 수출하고 있다.¹²⁾

반면 오징어, 명태 등 다른 어종들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감소추세에 있다. 명태는 쿼터가 급감한 2002년부터 수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명태류가 포함된 저서어류의 수출은 5만 305톤, 1억 302만 달러 수준으로 2000년 대비 각각 26.2%, 89.0% 증가하였다. 오징어는 2014년 생산량이 2만 4,172톤으로 2000년 대비 60.3% 감소하였으며 수출액도 3,609만 달러로 8.3% 감소하였다. 오징어의 수출비중은 생산량의 14.5% 수준으로 2000년 대비 19.8%p 감소하였다. 기타 명란, 필렛, 새우 등을 모두 합하여 추산한 결과 2014년 수출량은 2000년 대비 38.0%, 수출액은 75.0% 감소한 2만 3,459톤, 2,357만 달러 수준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수출비중은 오징어와 비슷한 16.0% 수준으로 2000년 대비 7.4%p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국내 원양산업은 생산량의 40%가 넘는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참치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오징어 등 기타어류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¹²⁾ 2000~2014년 동안 참치의 수출비중은 최소 35.6%, 최대 56.7%, 평균 49.8%이다.

〈표 2-6〉 원양어업 연도별 업종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총계		참치		명태 등 저서어류		오징어		기타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2000	266,508	538,972	127,928	350,723	39,860	54,501	60,892	39,340	37,828	94,408
2001	209,404	389,688	125,650	273,165	26,980	42,526	40,833	28,474	15,941	45,523
2002	233,371	414,478	142,867	278,377	42,692	59,390	32,871	23,237	14,941	53,474
2003	225,508	365,422	121,102	79,310	54,934	73,256	40,215	39,304	9,257	173,552
2004	191,202	395,534	101,377	260,744	47,690	67,945	37,087	54,230	5,048	12,615
2005	216,938	380,162	110,526	232,072	56,296	72,185	40,118	59,164	9,998	16,741
2006	258,475	410,424	166,544	282,007	56,481	88,006	20,851	23,422	14,599	16,989
2007	280,223	471,044	106,949	276,491	65,408	112,828	90,850	66,371	17,016	15,354
2008	257,135	505,689	108,588	332,080	59,586	109,219	75,544	51,556	13,417	12,834
2009	311,547	539,688	174,695	355,428	73,113	124,540	50,814	44,574	12,925	15,146
2010	274,250	658,297	173,683	477,655	58,101	111,705	31,672	53,161	10,794	15,776
2011	241,364	675,761	136,640	441,626	65,978	153,106	23,761	62,853	14,985	18,176
2012	269,867	712,344	161,990	499,931	67,274	142,072	28,680	54,767	11,923	15,574
2013	236,567	572,428	133,996	201,358	61,557	121,767	21,702	41,434	19,312	207,869
2014	274,316	538,513	176,380	375,833	50,305	103,022	24,172	36,085	23,459	23,573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표 2-7〉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일본		스페인		미국		태국		이탈리아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2000	97,566	370,914	19,732	26,089	23,845	38,006	42,027	24,237	-	-
2001	98,500	266,999	22,249	20,909	10,755	29,092	21,554	18,956	-	-
2002	104,497	262,588	15,908	17,414	80,509	20,875	31,668	24,242	3,478	20,706
2003	75,061	208,803	30,203	35,227	5,256	12,102	37,619	25,564	-	-
2004	55,779	226,025	18,366	25,430	2,070	8,358	35,199	30,185	2,463	5,631
2005	48,451	180,352	20,561	24,705	6,985	15,066	65,857	55,429	2,867	6,485
2006	41,484	163,895	19,283	23,781	1,912	11,733	101,950	94,356	3,375	7,872
2007	38,563	165,650	27,297	47,790	3,499	14,711	54,044	71,336	6,506	16,086
2008	32,072	182,152	13,681	25,793	4,085	20,093	62,919	98,563	4,995	10,507
2009	35,602	211,146	12,513	24,073	3,538	20,156	114,400	106,666	4,331	9,826
2010	35,201	292,608	19,496	39,076	5,096	27,277	86,903	94,107	7,537	18,977
2011	38,010	269,806	17,482	30,714	2,459	31,804	85,463	130,115	3,460	8,470
2012	29,614	227,766	13,005	27,311	8,322	40,156	101,710	196,857	3,602	10,610
2013	37,692	189,699	9,370	19,431	3,696	33,150	79,498	146,015	2,940	9,239
2014	41,240	179,853	10,315	20,701	4,649	30,384	77,414	95,499	1,566	8,129
구분	중국		프랑스		영국		기타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수출량	수출 금액		
2000	11,873	16,409	1,359	1,521	2,314	4,591	36,942	41,402		
2001	8,436	6,447	32,209	17,324	-	-	47,910	47,285		
2002	9,422	8,886	-	-	-	-	59,899	59,767		
2003	7,041	12,926	-	-	-	-	70,328	70,800		
2004	11,641	22,236	-	-	91	139	65,593	77,530		
2005	10,460	20,910	-	-	49	267	61,708	76,948		
2006	10,524	17,934	25	17	-	-	79,922	90,836		
2007	55,292	42,319	337	380	-	-	94,685	112,772		
2008	38,945	33,222	385	2,246	1	3	100,052	133,110		
2009	10,673	17,505	250	395	139	1,551	130,101	148,370		
2010	11,059	21,604	726	1,504	253	3,158	107,979	159,986		
2011	14,394	33,282	-	-	178	2,658	79,918	168,912		
2012	8,457	19,899	84	981	273	4,003	104,800	184,761		
2013	14,227	24,452	51	364	309	3,581	88,785	146,227		
2014	11,597	14,723	564	7,502	90	1,238	126,881	180,484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2014년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1위 수출국이며 뒤를 이어 태국, 뉴질랜드¹³⁾, 미국, 스페인, 중국 등의 순서로 많은 금액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수출국인 일본, 스페인, 미국의 경우 수출금액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2000년 대비 각각 51.5%, 20.7%, 20.1% 감소하였다. 반면 태국, 중국 등의 국가는 수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수입기준에 비추어 국내 원양어획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반면 신흥국들은 수산물 가공을 통한 유럽 수출 및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증가로 원양어획물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횡감용 참치를, 태국은 가공용 참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 스페인, 미국 등은 가공용 참치, 오징어, 저서어류를 비율적으로 수입하고 있었다. 특히 태국, 중국, 스페인은 유럽으로 가는 수산물 가공품이 주로 생산되는 공장이 많은 국가로 향후 원료로써 국내산 원양어획물의 품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제2절 원양어업의 위기

1. 생산구조의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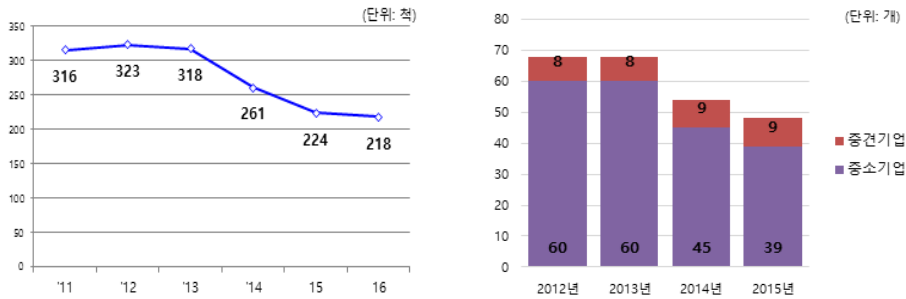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원양어업의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중장기 동안에 감소 국면이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생산구조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원양에서의 생산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에 걸친 생산실적(생산량, 생산액)의 감소로 인한 우리 원양어업의 생산구조 악화를 개선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원양어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매출 악화보다도 자본 퇴출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원양어업의 기업체 수는 2012년의 68개에서 2015년의 48개로 20개(-29.4%)가

¹³⁾ 뉴질랜드는 <표 2-7>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나 2014년 2만 1,581톤, 5,187만 달러를 수출한 3위 원양수출 대상국이다. 국내 원양어획물 중 주로 저서어류와 오징어를 수입한다.

감소했다. 어선척수는 2012년 323척에서 2015년 224개로 99척(-30.1%)이 줄었다. 원양어업의 종사자 수는 2013년 8,550명에서 2015년 6,563명으로 1,987명(-23.2%)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림 2-5〉 원양어업의 어선척수와 기업체 수 추이



<원양어업 어선 척수 추이>

<원양어업기업체 수>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통계연감, 각 연도

이러한 생산구조는 원양어업체의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원양어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원양어업체의 종사자 수는 8,550명이었고, 2년 후인 2015년에는 6,563명으로 1,987명(-23.2%) 감소했다. 동 통계의 원양어업체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이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의 종사자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2013년의 3,596명에서 2015년에는 3,502명으로 94명(-2.6%)이 줄어든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4,954명에서 3,061명으로 1,893(-38.2%)명이 감소했다.

〈표 2-8〉 연도별 원양어업체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중견기업	3,596	3,808	3,502
중소기업	4,954	3,278	3,061
합계	8,550	7,086	6,563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2. 경영성과의 악화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우리 원양어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수익성은 감소한 반면에 안정성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이익률)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은 2011년에서 2015년에 각각 7.4%에서 5.3%, 11.9%에서 3.6%, 6.7%에서 2.4%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역시 각각 7.6%에서 6.9%, 21.6%에서 3.2%, 3.4%에서 0.8%로 낮아졌다.

〈표 2-9〉 우리나라 원양어업체의 규모별 손익의 관계 추이

(단위 : %)

규모	2011			2015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중견기업	7.4	11.9	6.7	5.3	3.6	2.4
중소기업	7.6	21.6	3.4	6.9	3.2	0.8

자료 : 통계청(KOSIS), 원양어업통계조사, 손익의 관계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를 기준으로 우리 원양어업의 안정성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보면, 다소 안정화 추이를 보였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2.5%P(51.6%→54.1%), 4.8%P(27.8%→32.6%) 증가, 부채비율은 8.9%P(93.9%→84.7%), 52.1%P(259.3%→207.2%) 감소, 차입금의존도는 5.4%P(30.2%→24.3%), 6.8%P(34.5%→27.7%) 감소했다.

〈표 2-10〉 우리나라 원양어업체의 규모별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안정성 항목	전체	원양어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011 (A)	자기자본비율	47.5	48.1	51.6	27.8
	부채비율	110.7	108	93.9	259.3
	차입금의존도	30.2	29.6	29.3	34.5
2015 (B)	자기자본비율	51.8	53.4	54.1	32.6
	부채비율	93.1	87.2	84.7	207.2
	차입금의존도	24.3	22	23.9	27.7
(B-A)	자기자본비율	4.3	5.3	2.5	4.8
	부채비율	-17.6	-20.8	-9.2	-52.1
	차입금의존도	-5.9	-7.6	-5.4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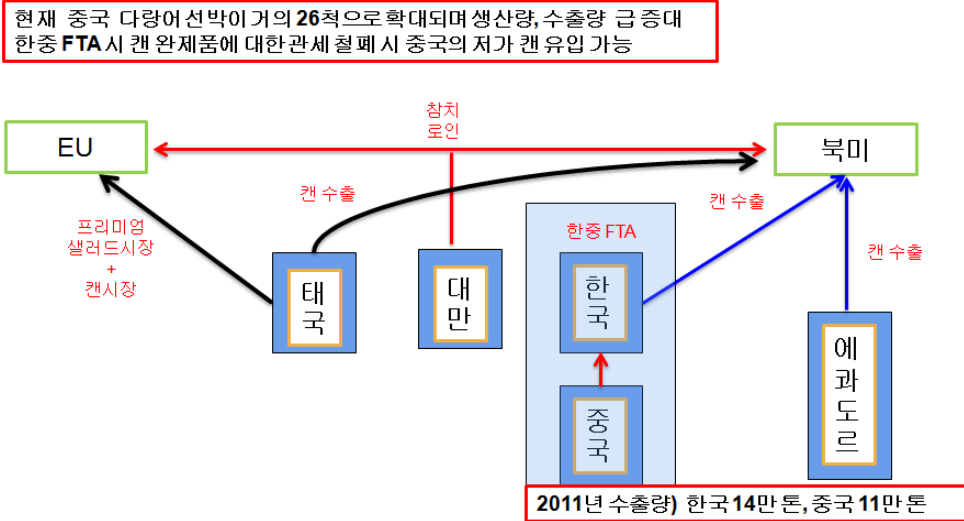
주 : 전체는 원양어업체가 수행하는 사업인 원양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를 포함

자료 : 통계청(KOSIS), 원양어업통계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경영성과 측면에서 우리 원양어업은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동향을 보이지만, MSC 등과 같은 글로벌인증제와 연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첫째, 참치캔 소비국에서의 MSC 도입이 확산되면 될수록 동 인증이 없는 중견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다. 중견기업의 수익성 감소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체들 중에서 중견기업은 대부분이 남태평양의 다랑어 자원을 어획대상으로 하여 태국 등에 참치캔 원료로 수출하고 있다. EU나 북미의 참치캔 시장의 상황이 우리 다랑어 원료 수출에 영향을 준다. 현재, EU나 북미와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 참치캔에 대한 원료조달과 가공 과정에 MSC 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MSC 요구가 확산될 경우에 매출액 감소와 비용 구조에 따른 우리 중견 원양어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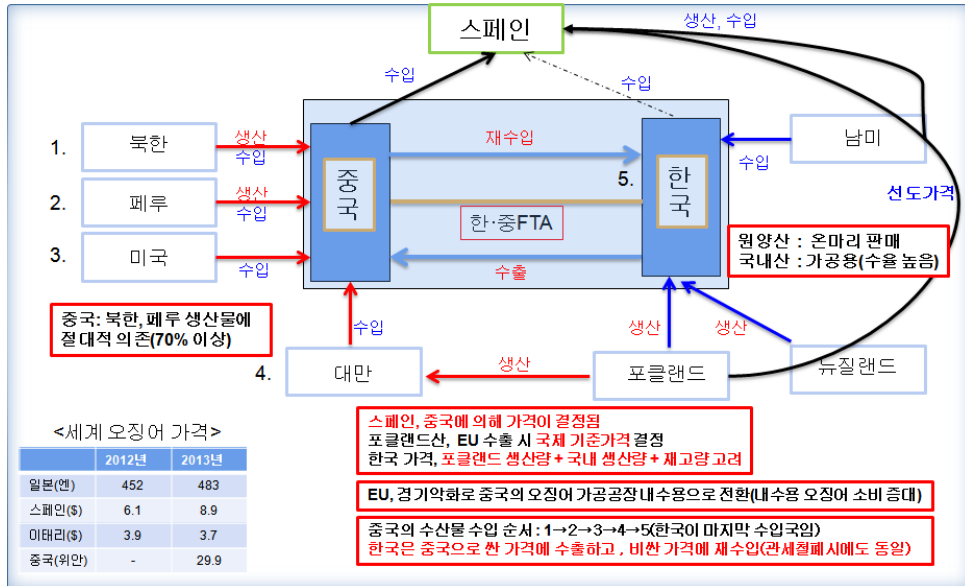
〈그림 2-6〉 다량어 어업의 글로벌 SCM 구조



자료 : 장홍석 외, 「수출통합인증제 이행과 국가브랜드 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2015. 1, p. 51.

둘째, 중소기업 역시 수산소비국(선진국)의 MSC 도입 확산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중소원양어업체들은 주로 포클랜드 어장에서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다. 오징어의 주요 수입국은 EU(스페인, 이탈리아)와 중국이며, 주로 오징어 가공품의 원료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오징어(원료)의 최종 시장은 EU, 북미 등의 선진국 시장이다. MSC 등이 EU에서 시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EU를 중심으로 MSC가 도입·확산될 경우에는 우리 중소원양어업체 역시 매출액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그림 2-7〉 오징어 어업의 글로벌 SCM 구조



자료 : 장홍석 외, 「수출통합인증제 이행과 국가브랜드 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2015. 1, p. 60.

셋째,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우리 원양어업체에 경영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원양어업의 전체적인 구조가 축소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안정성은 불건전 기업의 퇴출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 시장에서의 MSC 도입 및 확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원양어업체(중견 및 중소기업 할 것 없이)의 수익성 악화는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국제사회의 수산자원 관리 강화

한편, 우리 원양어업의 생산을 규정하는 외생변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기구(UN, WTO, OECD, FAO 등), 국제지역수산기구 등의¹⁴⁾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정책이다. 최근에 국제기구들은 수산자원에 대한

¹⁴⁾ 국제지역수산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

관리를 과거의 수산자원에 국한한 관리로부터 친환경·친생태·친지구적 관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UN의 수산결의안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발표하고, 해양자원의 보호 및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친환경·친생태·친지구적 관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규범(BBNJ)’이며, 여기서 해양영향평가(어업), 지역 기반 관리수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WTO/DDA의 11차 각료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중에서 특히 어업 면세유(금지대상 보조금)에 대해 주요 안건이 되었다. 만약 면세유에 대한 금지보조금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에 MSC 등과 같은 글로벌인증제에서 이러한 국제협약의 결과를 인증 요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곧 우리 원양어업에 비용 상승 요인으로 적용되어 성립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FAO의 수산위원회에서는 IUU 방지를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규범, 어획증명제도, 자발적 지침 등에 대한 논의는 물론 2017년 7월을 승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결국 글로벌인증제의 중요한 인증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지역수산기구에서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친환경·친생태·친지구적 관리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전자어획증명제도 도입 준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의 옵서버 커버리지 상향 조정, 항만국 검색 절차 강화 등,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 선박 목록 채택 등의 동향들은 향후 글로벌인증제의 중요한 선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3절 시사점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원양어업의 동태와 구조를 살펴본 결과, 우리원양어업은 산업규모 자체가 축소 경향에 있으며, 이에 따른 외부 충격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선제적 적응이 시장 선점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외부 충격의 발생은 우리 업계나 정부가 스스로 통제 가능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즉, 외부 충격의 발생 자체를 우리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격은 단순히 우리의 원양어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외에 다른 국가의 원양어업계에도 같은 제약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지의 여부가 국제 원양어업 경쟁에서 선점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원양어업계는 산업 규모의 축소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인증제의 확산과 원양어업계로의 도입은 개도국 원양어업계에 비해서 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의 관점에서는 원양어업계의 글로벌인증제 도입을 확대하면, 중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글로벌인증제 현황과 원양업계의 인식

이 장에서는 우리 원양어업의 일부 기업들이 요청하는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원양어업체들을 대상으로 MSC의 인식과 수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MSC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다.

제1절 글로벌인증제 현황

1. CO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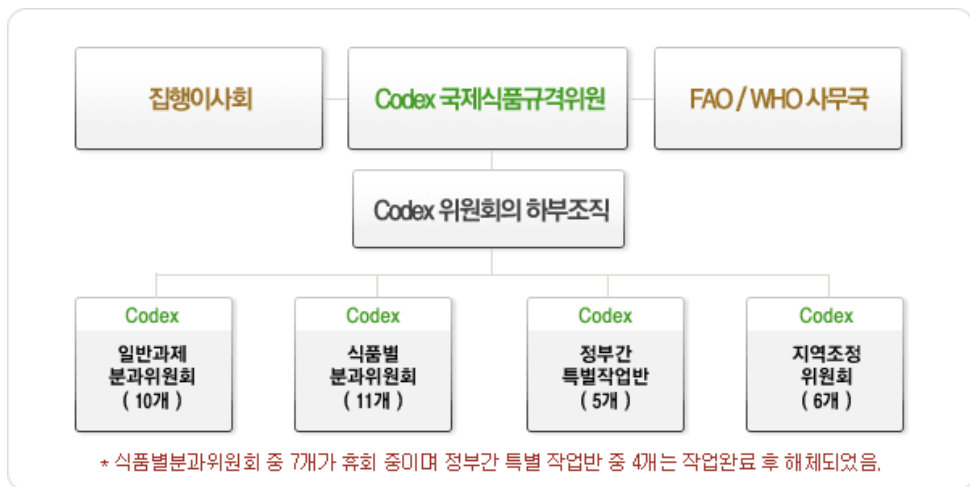
CODEX는 통상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¹⁵⁾ 약칭으로 국제식품 규격위원회를 의미한다. FAO 및 WHO는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공정무역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1962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intergovernmental body). FAO와 WHO의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만 회원국 가입이 허용되는데, 2012년 기준 회원국은 18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70년에 가입하였다.

CODEX의 주요 역할은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교역에서 「식품위생 및 규격의 국제 기본규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CODEX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에 의한다. 규격제정 시 통상 8단계를 거치나(6~8년 소요) 긴급시 5단계(급행수준) 기준으로 제정된다. CODEX는 매년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하부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기준 및 지침을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다. 해당 기준은 WTO가 인정하는 국제식품 기준으로, 회원국 등에 권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식품 관련한 통상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 기준으로 적용된다.

¹⁵⁾ CODEX : 라틴어로서 영어의 code(법령), alimentarius : 라틴어로서 영어의 food(식품)에 해당

CODEX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다. 매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CODEX 기준 규격 등의 최종 승인 및 신규 작업을 결정한다. 집행이사회는 CODEX 위원회의 기본방향 및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전략 계획 및 규격관리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하부 조직에는 일반과제분과위원회(10개), 식품별분과위원회(11개), 정부간특별작업반(5개), 지역조정위원회(6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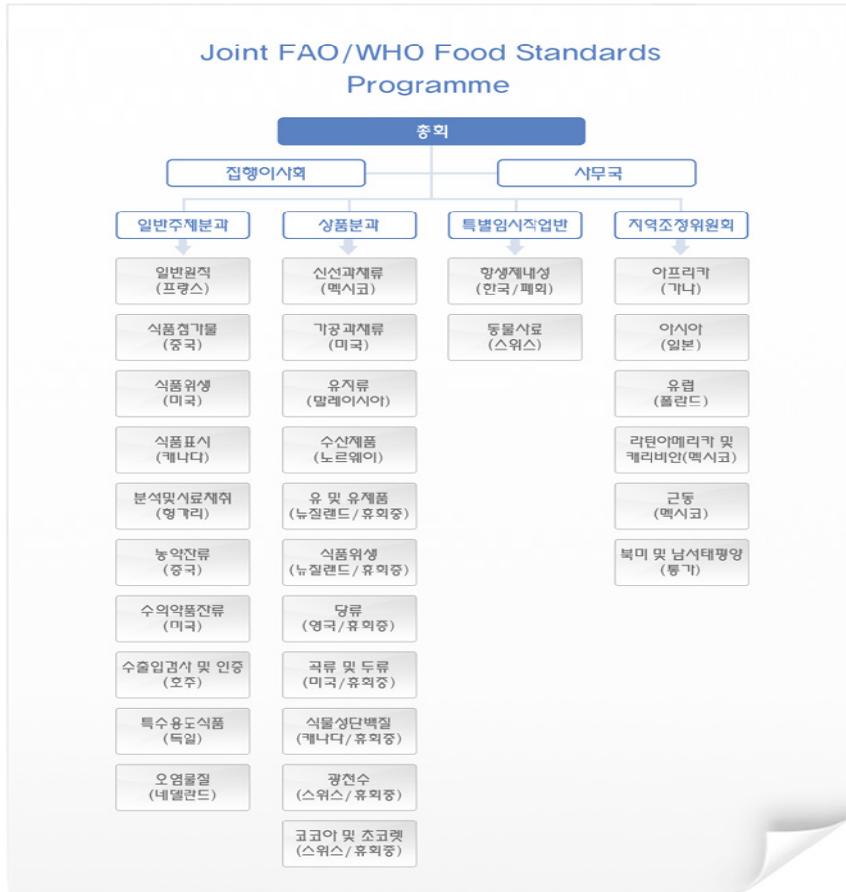
〈그림 3-1〉 CODEX 조직체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일반과제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일반원착위생·식품표시·첨가물통관검사 및 인증 등과 같이 식품의 규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식품별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식품 유형별 기준 규격을 검토한다. 식품별 분과위원회는 수산물 관련 규격을 담당한다.

〈그림 3-2〉 CODEX 조직



자료 : 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www.foodcert.kfri.re.kr)

CODEX 규격·실행규범·지침·기타문서 등 약 317개의 국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CODEX의 규격은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규격과 지역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지역규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CODEX의 국제식품규격에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식품 규격 제안서가 제출되면 해당 위원회는 제안서 및 위원회가 마련한 기준과 비교·검토한 뒤 규격안이 마련되어(제2단계) 회원국 및 관련 당사국에 회람된다(제3단계). 위원회는 규격안 및 각국의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안을 마련하

기도 한다. 이후 진행 사항을 검토하고, 규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후 일반 이사회에서 규격안으로 확정되면 이를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재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에 올려 규격안을 심의한다. 그 후 총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확정된다.

〈표 3-1〉 CODEX 규격

종 류	주요 내용
규격(Standard)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규격(식품군별) 지역 조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지역 규격
지침(Guideline)	특정 식품군보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특정 조건에 대한 특정 식품군에 대한 위생실행규범
기타 문서(MRLs*, Miscellaneous)	분류표, 목록, 정보 등

주 : MRLs(Maximum Limit for Pesticide Residues)이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의미함

자료 : CODEX 홈페이지(<http://www.CODEXalimentarius.org>)

〈그림 3-3〉 CODEX 규격제정 절차(일반절차)

진입단계	협의를문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제안국)→ 필요성 검토(담당 분과)
1단계	CODEX의 규격 설정 필요성 검토 및 총회 작업승인
2단계	CODEX의 규격안(Proposed Draft Standard) 작성·제출(제안국)
3단계	CODEX의 규격 초안 발송(국별), 공람·의견 수렴(사무국)
4단계	각국의 접수·의견 고려, CODEX 규격 초안 심의(해당분과)
5단계	CODEX 규격안(Draft Standard) 총회 확정
6단계	CODEX 규격안 국별 송부 및 의견 수렴(사무국)
7단계	CODEX 규격안 심의(해당 분과)
8단계	CODEX 규격 최종 확정(총회)

자료 : CODEX 홈페이지(<http://www.CODEXalimentarius.org>)

〈그림 3-4〉 CODEX 규격제정 절차(신속절차)

진입단계	협의문 및 사업계획서 제출
1단계	총회 결정 신속성 결정
2단계	일반절차 동일
3단계	일반절차 동일
4단계	일반절차 동일
5단계	CODEX 규격 최종 확정(총회)

자료 : CODEX 홈페이지(<http://www.CODEXalimentarius.org/>)

〈표 3-2〉 수산식품의 CODEX 기준 규격 채택 현황

구분	영문명	국문명	채택 연도
Fish and Fishery Products	Canned salmon	연어통조림	1981
	Quick frozen finfish, eviscerated or uneviscerated	내장 제거 또는 제거하지 않는 급속 동결 어류	1981
	Canned shrimps or prawns	새우 또는 보리새우 통조림	1981
	Canned tuna and bonito	참치 및 가다랑어 통조림	1981
	Canned crab meat	게살 통조림	1981
	Quick frozen shrimps or prawns	급속동결 새우 및 보리새우	1981
	Canned sardines and sardine-type products	정어리 및 정어리 형태의 통조림	1981
	Quick frozen lobsters	급속동결 바닷가재	1981
	Canned finfish	어류 통조림	1981
	Quick frozen blocks of fishfillets, minced fish flesh and mixtures of fillets and minced or in batter	급속 동결 어육 펠렛, 다진 어육, 이의 혼합물	1981
	Quick frozen fish sticks, fish portions and fish fillets-breaded or in batter	급속 동결 어류 스틱 (빵가루나 반죽 묻힌 것)	1989
	Salted fish and dried salted fish of the gadidae family of fishes	대구류의 건조 및 건조염장	1989
	Dried shark fins	건조 상어 지느러미	1993
	Quick frozen fish fillets	급속 동결 어류 펠렛	1995
	Quick frozen raw squid	급속 동결 오징어	1995
	Crackers from marine and freshwater fish, crustaceans and molluscan shellfish	해수어, 담수어, 갑각류, 연체조개류로 제조된 크래커	2001
	Boiled dried salted anchovies	가열·건조 멸치	2003
	Salted atlantic herring and salted sprat	염장 대서양 청어 및 청어류	2004
	Live and raw bivalve molluscs	활신선 이매패류	2008
Food Additives	Food grade salt	식용소금	1985

자료 : CODEX 홈페이지(<http://www.CODEXalimentarius.org/>)

한편, CODEX가 규정하는 식품규격 중에서 수산식품 분류는 어류 및 어류제품(Fish & Fishery Products)과 식품첨가물에 포함되어 있는 식염(Food grade salt)이다. 현재, 수산식품 종류는 총 19가지이며, 이들 모두 어류 및 어류제품이다. 가공품으로는 냉동, 염장, 건조, 통조림, 활어 및 신선 식품 등이며, 연어, 다랑어, 정어리, 대구, 상어, 안초비, 청어, 오징어, 새우, 바다가재 등이 특정 어종명 규격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거의 대부분이 어류이며, 갑각류(새우, 게살) 및 연체동물(오징어)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¹⁶⁾

(예시) 참치 및 가다랑어 통조림에 대한 규격
CODEX STAN 70-1991(Rev.1-1995)

1.범위 (SCOPE)

본 규격은 참치 및 가다랑어 통조림에 적용된다. 단, 참치 및 가다랑어의 함량이 50% m/m 이하인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설명(DESCRIPTION)

2.1.제품의 정의 (PRODUCT DEFINITION)

참치 및 가다랑어 통조림은 아래의 어종들의 살로 만들며, 밀봉된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이다.

- Thunnus alalunga
- Thunnus albacares
- Thunnus atlanticus
- Thunnus obesus
- Thunnus maccoyii
- Thunnus thynnus
- Thunnus tongoe
- Euthynnus affinis
- Euthynnus alleteratus
- Euthynnus lineatus
- Katsuwonus pelamis(syn.Euthynnuspelamis)
- Sarda chilensis
- Sarda orientalis
- Sarda sarda

¹⁶⁾ 월간 KMI 수산동향, 수산포커스,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CODEX 등록 필요성과 과제’,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2010

(예시) 참치 및 가다랑어 통조림에 대한 규격
CODEX STAN 70-1991(Rev.1-1995)

2.2. 가공 공정의 정의(PROCESS DEFINITION)

제품은 상업적 멸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하여야 한다.

2.3. 형태(PRESENTATION)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2.3.1. Solid -가로로 자른 참치 및 가다랑어의 절단면은 캔 용기의 뚜껑과 평행하게 놓는다. 나머지 Flake와 Chunk의 비율은 전체 고형량의 18%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2. Chunk-근구조가 유지되어 있으며, 크기가 가로, 세로 1.2cm 이하인 생선조각을 말한다. 크기가 1.2cm 이하인 생선살의 비율은 고형량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3. Flake또는 Flakes-근구조가 유지되어 있으며, 크기가 1.2cm 이하인 생선조각이나 이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크기가 1.2cm 이하인 생선살의 비율은 고형량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3.4. Grated또는 shredded-일정한 크기로 잘라 조리한 생선조각을 혼합한 것을 말하며, 페이스트로 구성되지 않는다.

2.3.5. 기타형태 (Other Forms of Presentation)

다음의 경우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i) 규격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 (ii) 본 규격의 모든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iii) 소비자의 혼동이나 오도를 피하기 위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필수구성성분 및 품질요소(ESSENTIAL COMPOSITION AND QUALITY FACTORS)

3.1. 원재료(RAW MATERIAL)

제품은 Section2.1에 제시된 신선한 어류로 만들어져야 하며, 인간이 섭취하는데 적합해야 한다.

3.2. 기타성분(OTHER INGREDIENTS)

본 제품에 사용되는 packing medium과 기타 성분은 식용 가능해야 하며, CODEX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3. 부패(DECOMPOSITION)

테스트 할 평균 시료를 기준으로, 히스타민(histamine)이 10mg/100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4. 완제품(FINAL PRODUCT)

Section8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들에 따라 Section9를 시행할 경우는 본 규격을 따라야 한다. 제품의 검사는 Section7의 방법에 따른다.

(예시) 참치 및 가다랑어 통조림에 대한 규격
CODEX STAN 70-1991(Rev.1-1995)

4.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다음에서 허용된 식품첨가물만을 사용할 수 있다.

첨가물	최대기준
<u>증점제 또는 호료 (Thickening or Gelling Agents) - packing media에만 사용가능</u>	
400 Alginic acid 401 Sodium alginate 402 Potassium alginate 404 Calcium alginate 406 Agar 407 Carrageenan and its Na, K, and NH ₄ salts (including furcelleran) 407a Processed Eucheuma Seaweed (PES) 410 Carob bean gum 412 Guar gum 413 Tragacanth gum 415 Xanthan gum 440 Pectins 466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GMP
<u>전분유도체 (Modified Starches)</u>	
1401 Acid treated starches (including white and yellow dextrans) 1402 Alkaline treated starches 1404 Oxidized starches 1410 Monostarch phosphate 1412 Distarch phosphate, esterified 1414 Acetylated distarch phosphate 1413 Phosphated distarch phosphate 1420/1421 Starch acetate 1422 Acetylated distarch adipate 1440 Hydroxypropyl starch 1442 Hydroxypropyl starch phosphate	GMP
<u>산도조절제 (acidity regulators)</u>	
260 Acetic acid 270 Lactic acid (L-, D-, and DL-)	GMP

(예시) 참치 및 가다랑어 통조림에 대한 규격
CODEX STAN 70-1991(Rev.1-1995)

5. 위생 및 처리(HYGIENE AND HANDLING)

5.1. 완제품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어떠한 물질도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5.2.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에서 규정한 시료채취 및 실험방법에 의해 검사할 경우, 제품은:

- (i) 일반적인 저장상태에서 미생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 (ii) 제품에 히스타민(histamine)이 100g당 2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iii) CAC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위해 미생물로부터 파생된 어떤 물질도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iv) 밀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기결합이 있어서는 안 된다.

5.3. 본 규격의 조항들에 적용되는 제품은 “국제권장실행규범-식품위생의 일반원칙(CAC/RCP1-1969)” 및 다음의 관련된 규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i) 통조림에 대한 국제권장실행규범 (CAC/RCP10-1976)
- (ii) 저산성 및 산성화된 저산성 통조림 식품에 관한 국제권장위생실행규범 (CAC/RCP23-1979)
- (iii) 어류 및 어류제품의 국제실행규범초안(제정 중)1) 중 수산양식제품에 관한 섹션.

6. 표 시(LABELLING)

1) 실행규범초안이 완료되면 “어류 및 어류제품의 실행규범”으로 대체할 것이다. “포장식품의 표시에 대한 CODEX 일반규격(CODEX STAN 1-1985)”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조항들을 적용한다.

6.1. 제품명(THE NAME OF THE FOOD)

6.1.1. 표시사항에 제품명은 “참치” 또는 “가다랑어”로 명시해야 하며, 취급하는 나라의 관습, 관행,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명칭을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적절히 명시해야 한다.

6.1.2. 제품명에는 색을 나타내는 용어가 동반되어야 한다. “white”는 *Thunnus alalunga*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light”나 “dark”, “blend”는 각국의 법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6.1.3. 형태 (FORM OF PRESENTATION)

Section 2.3에 제시된 형태는 제품명 가까이에 명시해야 한다.

6.1.4. Packing medium은 제품명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HACCP

HACCP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하며,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방을 중시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이다. 다시 말해, 식품의 원료 조달과 제조의 과정에서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위해 요소들이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해 요소의 발생 원인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는 규정이다.

〈그림 3-5〉 HACCP의 의미



기존 식품 제조공정의 안전관리는 최종 제품의 품질 검사를 통한 관리로 위해의 사후 통제였다면 HACCP은 원료와 제조 공정에 대한 위해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해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완료 전에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식품위생관리들은 전수 검사를 위해서는 분석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전수검사에 한계 때문에 식품의 위해요인이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HACCP 시스템은 이에 비해 경비가 저렴하고 식품의 안전성에도 전수조사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표 3-3〉 HACCP와 기존 위생관리 체계의 비교

구 분	HACCP 위생관리 체계	기존 위생관리 체계
특 징	위해사전예방 모든 제품의 완전성 확보	위해 사후 통제 최종품 불량률 최소화
위생관리방법	공정관리(중요관리점 관리)	최종제품 관리, 검사
위해요소관리	분석 기반의 위해요소 관리	규정된 일부 위해요소만 관리
신 속 성	즉각 조치 가능(필요시)	시험 및 분석에 장시간
소 요 비 용	운영경비 저렴	시험 및 분석에 많은 비용
제품안전성 관리자	비 숙련공도 가능	숙련공만 가능

자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안전시스템 구축동향과 전망, 2012

HACCP 관리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7원칙 12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7원칙은 HACCP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용되는 주요 원칙이며, 12절차는 준비단계 5절차와 본 단계인 HACCP 7원칙을 포함한 HACCP 관리체계 구축 절차를 의미한다.

〈그림 3-6〉 HACCP 7원칙 12절차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안전시스템 구축동향과 전망, 2012

즉, HACCP는 식품안전 기본법 준수, 위생설비 및 시설, 근로자 위생관리 등이 포함된 선행요건을 갖추어야 실시가 가능하며,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포인트를 찾아내어 관리가 이행되어야 효율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다. 즉, HACC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해요소 분석과 중점관리 포인트를 찾아내어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위해요소는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있다. 식품의 모든 원료와 공정과정에 대해서 위해요소를 분석한 후에 중점관리 포인트를 7원칙에 준하여 동 계획을 수립한다.

〈표 3-4〉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적용 대상식품

고시적용품목	고시 중 의무적용품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기타 빵 또는 떡류·면류 일반가공식품의 기타가공품 빙과류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도시락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절임식품 중 김치류·절임류·젓갈류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용(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주스류) 두부류 또는 묵류 저산성 통병조림 중 굴통조림 건포류 드레싱 빵 또는 떡류 중 빵, 케이크류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 중 국수·냉면·당면·유당면류 신선편의식품 단순 전처리 식품(자연 상태의 농·임산물 또는 박피 등을 거친 농·임산물을 세척, 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기타가공품 [자연 상태의 농·임산물 또는 박파·세척·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친 농·임산물을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소독 등의 공정을 거쳐 포장한 식품이거나, 자연 상태의 농·임산물 또는 박파·세척·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친 농·임산물을 가열(삶은 공정 포함)·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포장한 나물류 등을 말한다.] 냉장수산물가공품(수산물을 내장 제거, 세척, 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냉장한 식품을 말한다.) 기타 식품판매업소 판매식품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조리·제조식품 식품소분업소의 소분식품(HACCP 적용 품목을 소분한 경우에 한한다.) 과자류 음료류 다류 주류(탁주) 건강기능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의 단순전처리식품(자연 상태의 농·임산물 또는 박피 등을 거친 농·임산물을 세척, 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자료 : 전게서

HACCP 기본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적용하는 대상과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은 식품에 대해 HACCP를 일정 수준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가 심사를 직접하여 업체에 대해 HACCP를 인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USDA의 FDA가 HACCP 책임기관으로 수산물, 주소, 축산물에 대해 HACCP 의무 적용을 하고 있다. 승인은 지방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의무적용 품목에 대해 제조업소의 영업신고 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후 승인한다. 사후관리는 지방정부가 의무적용 품목에 대해 담당자가 상시 관리하나, 국가적인 위해 발생 시에는 FDA 또는 USDA에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지원대책으로는 USDA와 FDA가 HACCP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품목별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방정부의 평가자를 양성한다. 또는 지방정부는 HACCP 컨설팅 및 시설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HACCP에 대한 지정마크, 광고 허용 등의 홍보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표 3-5〉 HACCP을 도입한 주요 선진국의 현황

구분	미국	일본	유럽연합
제도명	HACCP 제도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	HACCP 제도
책임기관	FDA(미 식약청), USDA(농무부)	후생성	EU 식품안전위원회
적용품목	수산물, 주스, 축산물 의무적용	자율적용 (우유, 우제품, 청량음료, 식육제품, 어육제품, 살균가열제품에 한함)	회원국내 모든 제조가공품 의무적용
승인	지방정부 주관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소 영업 신고시 담당자가 현장평가 후 승인	지방 후생국 주관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하여 승인 ※ 필요시 도도부현에 평가 의뢰	지방정부 주관 제조업소가 영업신고시 담당자가 현장 평가 후 승인
사후관리	지방정부 상시관리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소에 대해 담당자가 평가 ※ 국가적인 위해발생시 FDA 또는 USDA에서 사후평가 실시	지방 후생국 1회/년 사후 평가 현장조사를 통해 사후 관리, 3년마다 갱신 평가 ※ 필요시 도도부현에 평가 의뢰	지방정부 상시 관리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소에 대해 담당자가 평가

〈표 3-5〉 HACCP을 도입한 주요 선진국의 현황(계속)

구분	미국	일본	유럽연합
지원대책	FDA, USDA : HACCP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품목별 매뉴얼 배포, 지방정부 평가자 배포 지방정부 : HACCP 컨설팅 및 시설 등 지원 ※ HACCP에 대한 지정마크, 광고허용 등의 홍보지원 없음	후생성: HACCP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후생성 홈페이지에 승인업체 현황 등록 지방후생국 및 도도부현 평가자 양성	EFSA: HACCP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품목별 매뉴얼 배포, 회원국내 평가자 양성 ※ HACCP에 대한 지정마크, 광고허용 등의 홍보지원 없음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요구자료, 2009

3. ISO 22000

ISO 22000은 HACCP의 의무화 규제에서 벗어나 식품안전관리를 ISO9001(품질경영 중심)로 접근한 국제표준규격이다. HACCP는 국별로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의무화를 인증하고 있는 반면에 ISO 22000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SO 22000은 HACCP과 품질경영시스템(QMS)이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 식품공급사슬 과정에서 최종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소통·체계적 경영·선행요건·HACCP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눈여겨볼 항목은 ISO 22000 제7항으로 제품의 설계 대신에 HACCP 원칙 12 단계를 요구하고 있다.¹⁷⁾ ISO 22000은 식품기업의 원료 조달에서 식품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식품 안전을 위한 필요한 운영을 국제적으로 통합조화한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내용보다 뚜렷하고 일관된 통합적 식품안전경영체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7) HACCP 12단계 원칙은 본 보고서의 HACCP 편을 참고 바람

〈표 3-6〉 ISO 9001과 ISO 22000의 비교

ISO 9001	ISO 22000
적용범위	적용범위
인용규격	인용규격
용어 및 정의	용어 및 정의
품질경영시스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경영책임	경영책임
자원관리	자원관리
제품실현	안전한 제품의 기획 실현
측정, 분석 및 개선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타당성 확인, 검증 및 개선

자료 : ISO2200 홈페이지(<http://www.iso.org>)

〈표 3-7〉 HACCP와 ISO 22000의 비교

	HACCP	ISO 22000
1	정부 주도 + 민간	민간 주도
2	규제중심 정부중심의 강제성/ 민간의 참여	자율적 고객만족중심 - 자율성
3	지역성 - 국가별 해석	통용성-범세계적
4	7원칙 12절차	객관적 규격
5	부가적 프로그램 필요	포괄적, 효율적
6	경직성	유연성, 개방성
7	체계적 접근 - 재품별, 방법	시스템적 접근 - 목표와 대상

자료 : ISO2200 홈페이지(<http://www.iso.org>)

ISO 22000의 인증은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 민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을 한다. 여기서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의 인증기관은 국별로 인정기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인정원(Korea Accreditation Board)이 인증기관을 인정·허가하고 있다.

4.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1) MSC 인증제의 원칙과 운영 현황

MSC는 바다자원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국제야생동물기금(WWF)과 세계적인 유통회사 Unilever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하였다.

MSC 인증은 친환경 어업을 증명하는 MSC 어업인증과 MSC 어업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에게 주는 MSC Chain of Custody(이하, CoC)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어업자부터 소비자까지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생산, 가공·유통,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인증시스템이다.¹⁸⁾

〈그림 3-7〉 MSC 인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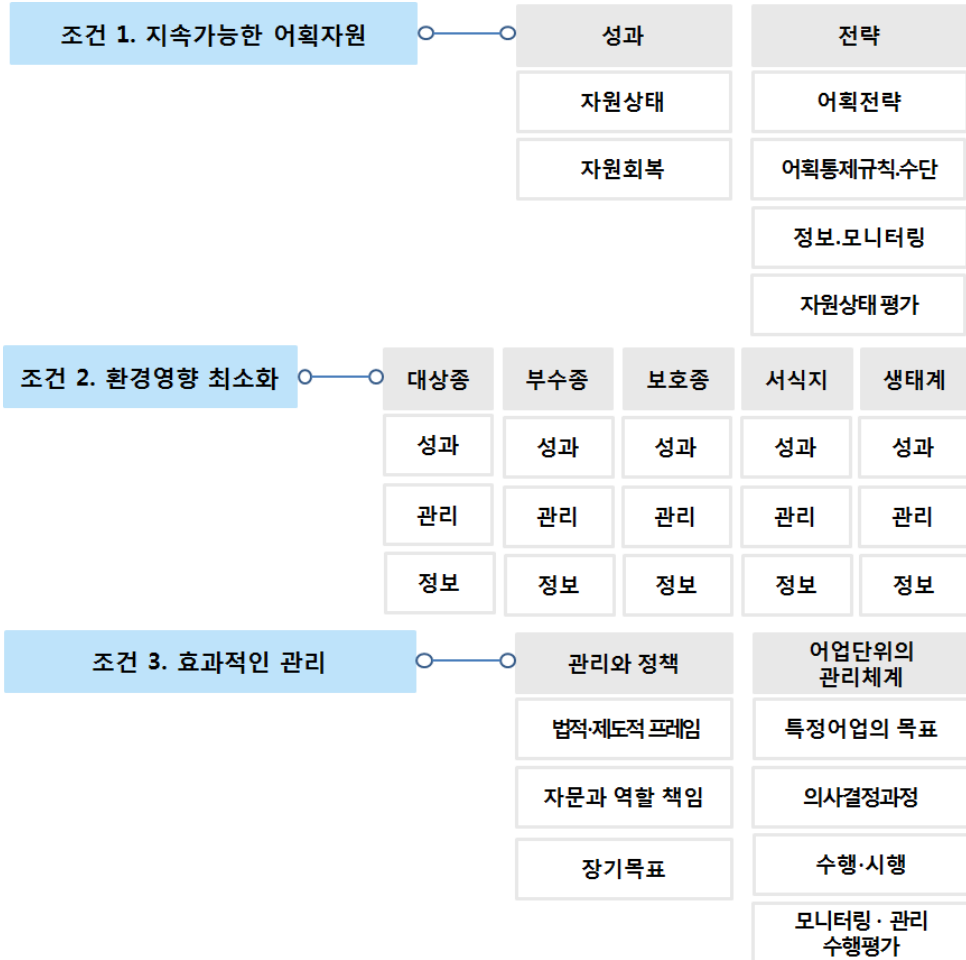


자료 : MSC, Get certified, p. 4.

MSC 어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MSC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에 따라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¹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수산정보, Vol.15

〈그림 3-8〉 MSC 어업인증 표준 3가지 원칙



자료 : MSC, Get certified, p. 6.

MSC 인증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이다.

하나, 어업 대상어종에 대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과도한 포획 행위 대신에 지속적으로 포획이 가능해야 한다.

둘,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 영향의 최소화이다. 조업은 생태계의 구조, 기능, 다양성,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해당국의 EEZ 내에서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이러한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를 증명해야 한다.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타국의 EEZ 내 혹은 국제지역수산기구 등이 관리하는 수역에서 국가, 관리기구 혹은 이들을 대신하는 거버넌스에 의해 동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셋, 효과적인 어업관리이다. 모든 어업은 지역, 국내, 국제법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제도적인 측면 외에 현장에 이러한 효과적인 관리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MSC에서 정한 어업 평가기준은 단순어종, 다수어종, 트롤어업, 연승, 형망어업, 통발어업, 담수어업, 해면어업, 연안어업, 원양어업, 저서류, 부어류, 기타어업 등에 대해 3가지 원칙(어업 대상종에 대한 지속적인 어업 가능성, 어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모든 어업이 지역·국내법·국제법 준수 여부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여부), 28개 수행지표별 항목에 대한 최소 60점 이상에 전체 평균 80점 이상 되어야 한다.

MSC는 크게 인증 단계와 관리 단계로 구분하다. MSC 어업 인증절차는 사전단계 → 준비단계 → 인증평가의 3단계 구조이며, 인증 후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표 3-8〉 MSC 어업인증 평가 절차

구분	주요 내용	기간
(1단계) 평가시행통보	○ 인증업체는 평가 진행여부, 항목(대상어종, 어구, 조업지역), 진행팀 등을 이해관계자에 알림	5~6개월
(2단계) 필요시 평가기준 개정	○ 평가단은 평가 대상 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하되 평가 대상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의(30일)	
(3단계) 정보수집·기록	○ 평가단은 기술문서, 어업관련 보고서 및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 통한 점수 측정	
(4단계) 전문가 검토	○ 인증업체는 MSC 표준에 근거한 어업 수행정도, 평균 점수, 인증결과, 제안 등을 작성하여 전문가에게 검토	
(5단계) 보고서 초안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인증업체는 MSC에 'Public Comment Report' 발송	

〈표 3-8〉 MSC 어업인증 평가 절차(계속)

구분	주요 내용	기간
(6단계) 보고서 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단은 최종보고서에 인증 여부 최종 결정이 담긴 내용을 최종 협의하여 발표 ○ 최종발표 이후 이의제기 가능 ○ 발표 이후 15일 이내 가능 	2~5개월
(7단계) 인증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C 어업인증을 취득(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간 유효 5년 ○ MSC 어업인증을 통해 발생한 제품의 포장 또는 메뉴에 MSC CoC 인증 라벨 부착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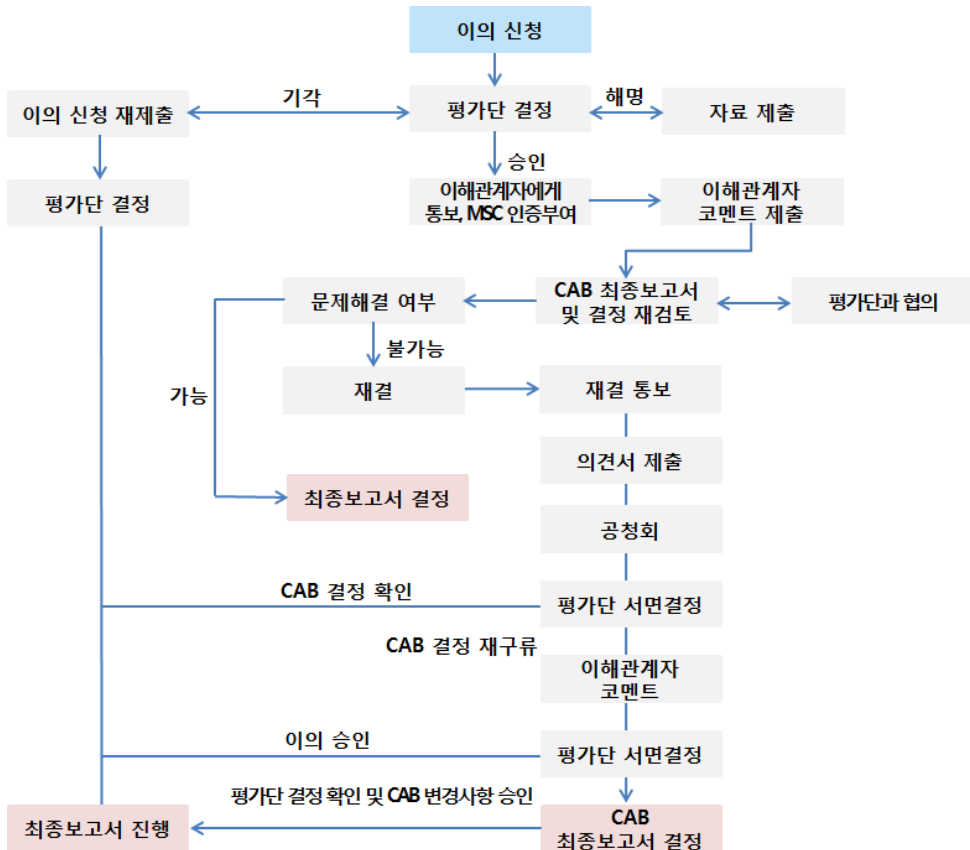
자료 : MSC, Get certified, p15-18

사전단계는 MSC 인증기준을 숙지 후 MSC에 인증평가를 신청하며, 준비단계는 MSC가 이해관계자들을¹⁹⁾ 구성하며, 제3자 인증업체를 위촉하여 평가준비를 완료한다. 이후 MSC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완료 시 인증업체는 MSC에 Public Comment Report를 발송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어업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완료까지는 최소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제기 시에는 인증평가 6단계에서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인증을 부여한다.

¹⁹⁾ 이해관계자는 정부기관, 환경·보호단체, 업계, 소비자, 과학자 등을 말한다.

〈그림 3-9〉 MSC 어업인증 평가 절차(이의제기시)



자료 : MSC, Objections Procedure, 2012, p1

인증 후 관리단계는 MSC 어업인증을 받은 1년이 지난 후 6개월부터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모니터링, 데이터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4년부터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MSC Co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MSC에서 정한 5가지 기준에 충족할 시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그림 3-10〉 MSC CoC인증 표준 5가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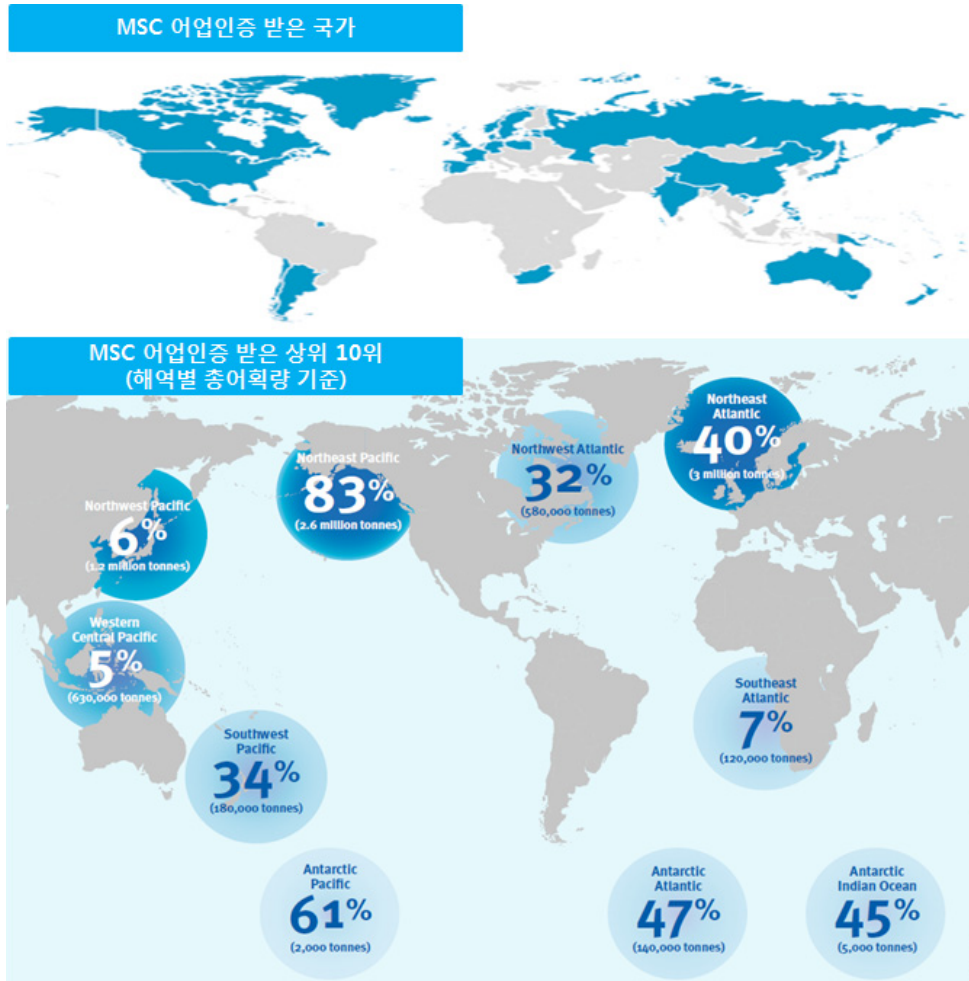
자료 : MSC, MSC Chain of Custody Standard, 2015

2) MSC 인증 국가 도입 현황

MSC 인증은 2016년 3월 기준 36개 국가에서 286개 어업인증(92개 평가진행 중)과 3,334개 기업이 CoC인증을 받았으며, MSC 인증마크가 달린 2만 492개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MSC 어업인증을 받은 36개국은 주로 개발도상국보다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 높게 차지하고 있다. 해역별로 보면, 해역별 총어획량 대비 MSC 어업인증을 받은 상위 10위는 태평양(북동태평양, 남극태평양 등)과 대서양(남극대서양, 북동대서양 등) 등에서 가리비, 대구, 바닷가재, 크릴새우, 부유성 갑각류, 연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MSC는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 확산되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어획량 중에서 880만 톤이 MSC 인증을 받은 어획물이다.

〈그림 3-11〉 MSC 어업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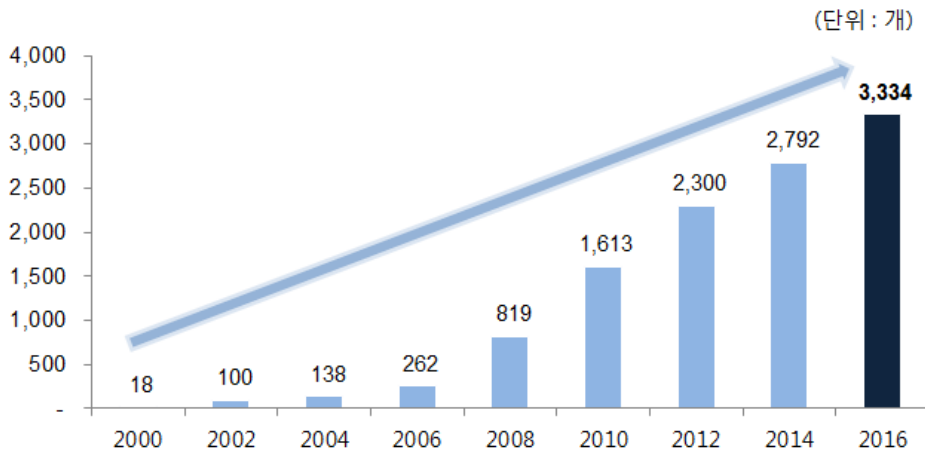
자료 : MSC, Annual Report 2015-16, 2016, p8

MSC CoC인증을 받은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유럽에 Alvert Hejin, M&S, Sodexxo, UK, Coop, Les Jours Bleus, 북미에 Whole Foods Market, Target, Loblaw, 그밖에 일본에 Aeon, Coop japan, 호주에 John west, 한국에 한성기업 등이 있다.²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SC CoC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2016년

²⁰⁾ 해양수산부. 해외수산물 인증제도 국내 적용방안 연구. 2016. p161.

3,334개로 2000년(18개) 대비 185%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활동과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식품이라는 차별화된 상품 판매로 기업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그림 3-11〉 MSC CoC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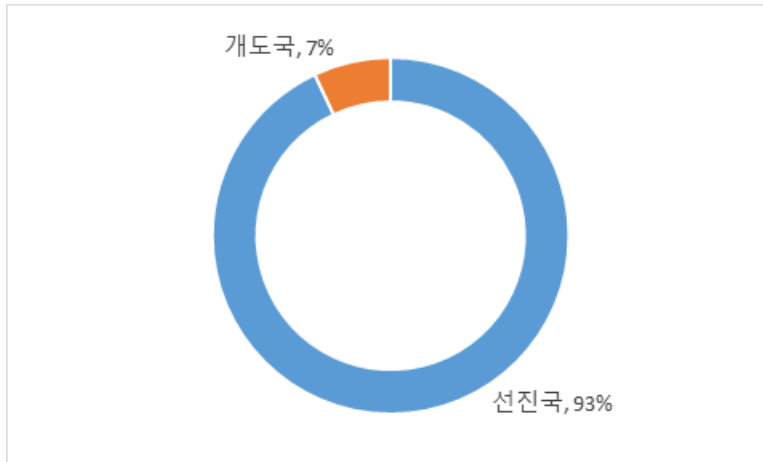
주 : 2016년 3월 기준임

자료 : MSC, Annual Report 2015-16, 2016, p20

동 인증제 도입은 선진국에 집중되고, 개도국은 인증비율이 낮다. 개도국의 MSC 인증비율은 7% 정도로 2016년 3월 현재, 21개국이 인증을 받았고 15개국이 평가 중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MSC는 선진국의 수산물 시장에서 자국 생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지만, 수요자들의 수산자원 보호, 친지구적·친환경적 상품 등에 대한 니즈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²¹⁾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증제도, 2016. p9.

〈그림 3-12〉 선진국과 개도국의 MSC 인증 비율(%)



주 : 2016년 3월 기준임

자료 : MSC, Annual Report 2015-16, 2016, p21

3) MSC 인증 비용

MSC 인증까지 필요한 금액은 5만 달러(USD)에서 15만 달러까지 인증 비용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 이유는 어장의 환경에서부터 조업 조건, 어선 장비, 어법 과정까지 전 범위에 걸쳐 인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어장까지의 인증을 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비용이 크게 가감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수준이나 거마비 등에 따라서는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MSC 인증과 관련하여 모든 인증 요청 기업에 대해 같은 비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어업기업이 포함된 국가, 지역, 어장 등에 따라서도 비용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대체적으로 보면, MSC에 도입에 적용되는 비용항목은 크게 행정비용(서류 검토비용 포함), 사전 평가 비용, 최종 평가 비용, 거마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비용은 3,000~5,000 달러(USD)가 들어가는데, 이는 MSC 지사가 설립된 지역 혹은 국가적인 비용이 계상되기 때문이다. 도입 요청에 대한 서류검토비 등이 행정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대부분(4만 7,000~14만 7,000달러(USD)는 사전 평가와 최종 평가를 위한 비용에 사용된다. 이는 관련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일당, 출장 체재비 및 거마비, 보고서 작성비 등에 사용된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체가 MSC 도입을 요청할 경우에 비용 경비는 한국과 어장의 물리적 거리, 원양어장에 대한 어족관리, 부수어획관리, 관리 체계 등의 조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0만 달러~15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²²⁾

4) MSC 인증 요구 및 적용 사례: 수요자의 선택

가. 국내외 어업 및 수산가공 분야

국내에서는 한성기업이 MSC 인증을 받았다. 한성기업의 수출시장은 주로 미국, 대만, 일본, 중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중동, 필리핀 등으로 특히, 선진국 지역에 연육(스리미)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한성기업은 MSC 인증을 받은 명태로 가공된 연육(스리미), 크래미 등을 수출하는 데 MSC 인증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내 유통망에서도 한성기업과 거대소매자본인 롯데마트가 MSC 인증으로 손을 잡고 있다.

미국계 반려동물 통조림 기업인 Whole Foods Market은 반려동물 시장 규모의 성장,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가족적 관계 강화 등을 배경으로 반려동물(특히, 고양이)을 위한 참치 캔의 원료와 생산과정에서 MSC 인증을 획득하였다. 고양이 전용 참치 캔은 자사 브랜드 ‘Pole & Line Tuna and Deck Hand Premium Cat Food’에는 MSC 인증을 획득한 북태평양(북미 내) 연승어업의 가다랑어와 인도양(몰디브) 연승어업의 가다랑어만을 원료로 조달하고 있다.

북미의 학교급식 공급업체인 SKIDMORE는 미국의 수백 명의 학생들의 급식에 MSC 인증을 받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달하고 있다. 매일 6만 4,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MSC 인증 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어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된다. 주요 어종은 대구, 넙치, 가리비, 해리벳, 새우, 연어, 해덕, 명태 등이다.

²²⁾ 국내의 MSC 대행기관과의 면담조사 내용

나. 숙박 및 식품업계

글로벌 호텔 및 요식업 기업인 Hilton 역시 자사 호텔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힐튼 호텔을 시작으로 전 세계 Hilton 호텔 네트워크에 공급되는 수산물에 대해 MSC 및 ASC 인증을 확대해 나갈 기업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대상 어종은 명태, Hake, 해덕, 서대, 정어리, 연어 등이다.

Hyatt 호텔도 Hilton에 질세라 2018년까지 취급 수산물의 약 15%에 대해 MSC 혹은 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이하 ASC) 인증 수산물로 대체할 예정이며, WWF(World Wild Federation, WWF)와 함께 “WWF-Hyatt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책”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햄버거 기업인 맥도널드는 2012년에 러시아에 명태 필렛 사업 진출을 도모했으나 러시아 어선의 낮은 MSC 인증 비율로 인해 진출을 포기한 바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히 수산분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커피의 공정무역 등), 스포츠 용품(축구공 생산에 어린이 노동 착취 등)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냉동식품 기업인 IGLO 기업은 냉동 수산물로서는 유럽에서 중요한 기업이다. 동 기업은 2020년까지 자사가 공급하는 모든 수산물 혹은 수산가공품에 대해 MSC 및 ASC 인증을 요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월마트는 수산물의 90% 이상을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이하, MSC) 인증 수산물로 조달할 것을 결정했다.

다. 기타

IKEA는 스웨덴의 가구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였다. IKEA에서는 가구소매점을 전세계로 확장하는 가운데 마케팅 전략으로서 가구 소매점 내에 식료 코너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식품도 공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47개국에 약 370여개의 가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IKEA는 자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조달하는 식품 중에서 수산물 혹은 그 가공품에 대해 MSC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대상 어종은 청어와 새우이다.

제2절 원양어업체의 글로벌인증제(MSC) 도입 인식 및 수요조사

1. 수요조사 개요

최근 주요 선진국의 수산물 시장에서는 MSC 등과 같은 수산분야 글로벌인증제를 단순히 상품의 위생, 안전, 품질 등의 과거 기준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조업 등과 같은 수산 환경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인증제를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의 수산물 유통업체들이나 구매자들은 글로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구매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원양어업체 대상으로 글로벌인증제와 관련한 인지도, 수요, 도입방안 등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13〉 수요조사 개요

조사 대상	→	전국 원양어업체 기업의 담당자
표 본 수	→	2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18.5\%$ Point
조사 방법	→	e-mail에 의한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및 전화 조사(CATI) 병행
표본 추출	→	전수조사
조사 기간	→	2016년 10월 17일(월) ~ 11월 1일(월)

2. 수요조사 분석결과

1) MSC 인지 여부

MSC 인지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혀 모른다/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까지 MSC가 원양업계 내에서 공론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기업이 20% 수준으로 일정 수준의 원양어업체들은 MSC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사업규모가 클수록 MSC의 인지도는 올라갔고, 작을수록 인지도가 내려가는 특성을 보였다.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전혀 모른다/이번에 처음 알게 됨”이라고 답한 기업이 20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인 6개 기업이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었다. 종사자 수에서도 모른다고 답한 11개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다.

반면에 MS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기업은 20개 기업 중 4개 기업이었으며, 이들 기업은 주로 종사자 기준 200인 이상 기업이 2개 포함되어 있었다.

정리해보자면, MSC에 대한 우리 원양업계의 인지도는 절반 정도가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MSC 등록 업체가 1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증 등록이라는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규모가 작을수록 MSC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양상은 중소규모 원양어업체가 주로 진출한 포클랜드 오징어 어업 등에서 MSC 인증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중소 원양어업체의 부채 비율이 200%를 웃도는 실태에 적용해 보면, 이들 MSC가 해외 주요 선진 수산소비국에 도입되면 될수록 포클랜드 오징어 어장에서의 우리 원양어업의 영향력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구조상 기업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9〉 친환경조업 인증제도 MSC 인지도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혀 모른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됨	들어는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전체		(20)	55.0	25.0	20.0
회사위치	수도권	(4)	25.0	50.0	25.0
	부산	(15)	60.0	20.0	20.0
	울산/경남	(1)	100.0	0.0	0.0
친환경조업 MSC인지도여부	비인지	(11)	100.0	0.0	0.0
	인지	(9)	0.0	55.6	44.4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 없음	(7)	85.7	14.3	0.0
	관심있음,대비못함	(8)	62.5	25.0	12.5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0.0	50.0	50.0
	인증신청완료	(3)	0.0	33.3	66.7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61.1	22.2	16.7
	수산물가공	(3)	33.3	0.0	66.7
	수산물류	(3)	33.3	0.0	66.7
	수산물수출	(10)	40.0	20.0	40.0
매출액	10억 미만	(3)	33.3	33.3	33.3
	10억~50억 미만	(3)	66.7	33.3	0.0
	50억~100억 미만	(4)	75.0	0.0	25.0
	100억 이상	(9)	55.6	22.2	22.2
	공개 거부	(1)	0.0	100.0	0.0
종사자수	20명 미만	(10)	70.0	20.0	10.0
	20~29명	(2)	50.0	50.0	0.0
	30~49명	(2)	100.0	0.0	0.0
	50~99명	(1)	0.0	0.0	100.0
	100~199명	(3)	33.3	33.3	33.3
	200인이상	(2)	0.0	50.0	50.0

2) 수산분야 국제 인증제도(MSC 등) 관심 및 대비 정도

수산 분야의 국제 인증제도 관심 정도에 대해 조사결과, ‘관심은 있지만 대비는 못하고 있다’ 40.0%, ‘관심이 없다’ 35.0%, ‘관심이 많고, 대비하고 있지만, 인증 신청은 하지 못하였다’ 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증신청까지 한 기업은 15%(3개 기업)로 나타났다.

〈표 3-10〉 수산 분야의 국제 인증제도(MSC 등) 관심 및 대비 정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관심이 없다	관심은 있지만 대비는안함	관심이 많고 대비 인증미신청	현재 인증신청
전체		(20)	35.0	40.0	10.0	15.0
회사위치	수도권	(4)	0.0	50.0	50.0	0.0
	부산	(15)	46.7	33.3	0.0	20.0
	울산/경남	(1)	0.0	100.0	0.0	0.0
친환경조업 MSC인지여부	비인지	(11)	54.5	45.5	0.0	0.0
	인지	(9)	11.1	33.3	22.2	33.3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없음	(7)	100.0	0.0	0.0	0.0
	관심있음,대비못함	(8)	0.0	100.0	0.0	0.0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0.0	0.0	100.0	0.0
	인증신청완료	(3)	0.0	0.0	0.0	100.0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38.9	44.4	11.1	5.6
	수산물가공	(3)	33.3	33.3	0.0	33.3
	수산물류	(3)	33.3	33.3	0.0	33.3
	수산물수출	(10)	30.0	20.0	20.0	30.0
매출액	10억 미만	(3)	0.0	66.7	0.0	33.3
	10억~50억 미만	(3)	100.0	0.0	0.0	0.0
	50억~100억 미만	(4)	25.0	75.0	0.0	0.0
	100억 이상	(9)	33.3	33.3	22.2	11.1
종사자수	공개 거부	(1)	0.0	0.0	0.0	100.0
	20명 미만	(10)	50.0	30.0	0.0	20.0
	20~29명	(2)	0.0	100.0	0.0	0.0
	30~49명	(2)	50.0	50.0	0.0	0.0
	50~99명	(1)	0.0	100.0	0.0	0.0
	100~199명	(3)	33.3	33.3	33.3	0.0
	200인이상	(2)	0.0	0.0	50.0	50.0

관심이 없는 기업은 조사대상 중 7개 업체로 35.0%로 나타났다. 매출액이나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글로벌인증제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개 기업은 이미 MSC 신청을 완료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200인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이 2개 업체였다.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9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MSC 등의 글로벌인증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시작한 기업도 포함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기업이 13개 업체로 인지도에 비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또한, 글로벌인증제(MSC 등) 도입 계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결과, ‘글로벌 시장의 안정적 수익창출’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인증 기업과 차별화’ 40.0%, ‘비인증이면 수출이 어려움’ 3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글로벌인증제는 기업측면에서는 결국에 매출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며, 수출 비중이 높은 원양어업체에게 있어 수출과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시장 창출에 대해서는 3개 업체(15.0%)가 답을 했다. 이는 현재 원양어업의 판매처는 오랜 기간 동안 구조화되고, 그 시장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규 시장 창출이 글로벌인증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과정에서 나타난 피조사자는 글로벌인증제를 받지 않으면, 시장을 잃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글로벌인증을 통해 기존의 시장 점유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원양어업체들은 글로벌인증제를 확보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수산기업의 시장을 선점해 가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글로벌인증제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인증이 없으면, 시장을 잃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문제를 글로벌인증제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11〉 국제 인증제도(MSC 등) 도입 계획이 필요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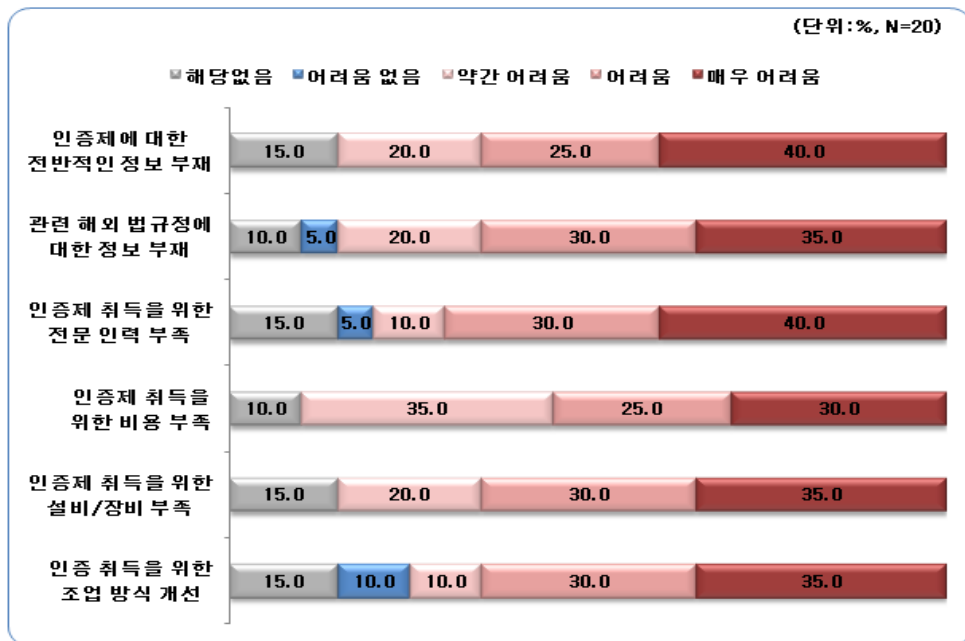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글로벌 사장의 안정적 수익창출	비인증 기업과 차별화	비인증 이면 수출이 어려움	신규 시장 확보	도입 계획이 불필요	타기업 들도 인증 취득
전체		(20)	65.0	40.0	35.0	15.0	15.0	5.0
회사위치	수도권	(4)	50.0	25.0	25.0	25.0	25.0	0.0
	부산	(15)	73.3	46.7	40.0	6.7	13.3	6.7
	울산/경남	(1)	0.0	0.0	0.0	100.0	0.0	0.0
친환경조업 MSC인지여부	비인지	(11)	72.7	45.5	27.3	9.1	18.2	0.0
	인지	(9)	55.6	33.3	44.4	22.2	11.1	11.1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없음	(7)	71.4	57.1	14.3	0.0	28.6	0.0
	관심있음,대비못함	(8)	62.5	25.0	50.0	12.5	12.5	12.5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50.0	0.0	50.0	50.0	0.0	0.0
	인증신청완료	(3)	66.7	66.7	33.3	33.3	0.0	0.0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66.7	38.9	33.3	11.1	16.7	5.6
	수산물가공	(3)	100.0	66.7	33.3	0.0	0.0	0.0
	수산물류	(3)	100.0	66.7	33.3	0.0	0.0	0.0
	수산물수출	(10)	70.0	50.0	30.0	20.0	10.0	0.0
매출액	10억 미만	(3)	33.3	33.3	66.7	33.3	0.0	33.3
	10억~50억 미만	(3)	66.7	66.7	0.0	0.0	33.3	0.0
	50억~100억 미만	(4)	75.0	25.0	50.0	0.0	25.0	0.0
	100억 이상	(9)	66.7	44.4	22.2	22.2	11.1	0.0
	공개 거부	(1)	100.0	0.0	100.0	0.0	0.0	0.0
종사자수	20명 미만	(10)	70.0	50.0	30.0	10.0	20.0	0.0
	20~29명	(2)	50.0	50.0	50.0	0.0	0.0	50.0
	30~49명	(2)	50.0	0.0	50.0	50.0	0.0	0.0
	50~99명	(1)	100.0	0.0	100.0	0.0	0.0	0.0
	100~199명	(3)	66.7	33.3	0.0	33.3	33.3	0.0
	200인이상	(2)	50.0	50.0	50.0	0.0	0.0	0.0

주 : 중복응답 가능

3) 글로벌인증제 대비의 어려움

글로벌인증제에 대비와 관련한 조사결과, 어려움(약간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포함) 기준으로 ‘인증제 취득을 위한 비용 부족’ 90.0%, ‘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부재’, ‘관련 해외 법규정에 대한 정보 부재’, ‘인증제 취득을 위한 설비/장비 부족’ 등이 각각 85%, ‘인증 취득을 위한 조업 방식 개선’ 7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글로벌인증제 대비 어려움



즉, 인증제에 대한 비용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되며,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 원양어업에 자세히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MSC와 같은 글로벌인증제 도입에 따른 조업 방식이나 어선 내부 설계, 체계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과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 정책에 MSC 등을 도입하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2〉 국제 인증제도 대비 어려움

(단위 : %)

구분	사례수	인증제 취득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부족				관련 해외법 규정 및 정보				
		해당 없음	약간 어려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해당 없음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전체	(20)	15.0	20.0	25.0	40.0	10.0	5.0	20.0	30.0	35.0
회사위치	수도권	(4)	0.0	25.0	50.0	25.0	0.0	0.0	25.0	50.0
	부산	(15)	20.0	20.0	20.0	40.0	13.3	6.7	13.3	26.7
	울산/경남	(1)	0.0	0.0	0.0	100.0	0.0	0.0	100.0	0.0
친환경 조업 MSC인지여부	비인지	(11)	9.1	9.1	27.3	54.5	9.1	0.0	18.2	27.3
	인지	(9)	22.2	33.3	22.2	22.2	11.1	11.1	22.2	33.3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없음	(7)	28.6	14.3	28.6	28.6	28.6	0.0	14.3	28.6
	관심있음, 대비못함	(8)	0.0	0.0	25.0	75.0	0.0	0.0	12.5	25.0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0.0	50.0	50.0	0.0	0.0	0.0	50.0	50.0
	인증신청완료	(3)	33.3	66.7	0.0	0.0	0.0	33.3	33.3	33.3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11.1	16.7	27.8	44.4	11.1	0.0	16.7	33.3
	수산물가공	(3)	0.0	33.3	0.0	66.7	0.0	0.0	0.0	33.3
	수산물류	(3)	0.0	33.3	0.0	66.7	0.0	0.0	0.0	33.3
	수산물수출	(10)	10.0	30.0	40.0	20.0	0.0	10.0	20.0	50.0
매출액	10억 미만	(3)	33.3	0.0	33.3	33.3	0.0	33.3	0.0	33.3
	10억~50억 미만	(3)	33.3	33.3	33.3	0.0	33.3	0.0	33.3	0.0
	50억~100억 미만	(4)	25.0	0.0	0.0	75.0	25.0	0.0	0.0	75.0
	100억 이상	(9)	0.0	22.2	33.3	44.4	0.0	0.0	22.2	44.4
	공개 거부	(1)	0.0	100.0	0.0	0.0	0.0	0.0	100.0	0.0
종사자수	20명 미만	(10)	30.0	20.0		30.0	20.0	10.0	20.0	30.0
	20~29명	(2)	0.0	0.0	100.0	0.0	0.0	0.0	0.0	100.0
	30~49명	(2)	0.0	0.0	0.0	100.0	0.0	0.0	50.0	50.0
	50~99명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199명	(3)	0.0	33.3	0.0	66.7	0.0	0.0	0.0	33.3
	200인이상	(2)	0.0	50.0	50.0	0.0	0.0	0.0	50.0	50.0

〈표 3-12〉 국제 인증제도 대비 어려움(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인증제 취득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인증제 취득을 위한 비용 부족			
			해당없 음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해당 없음	약간 어려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전체		(20)	15.0	5.0	10.0	30.0	40.0	10.0	35.0	25.0	30.0
회사위치	수도권	(4)	0.0	0.0	25.0	50.0	25.0	0.0	75.0	0.0	25.0
	부산	(15)	20.0	6.7	6.7	26.7	40.0	13.3	20.0	33.3	33.3
	울산/경남	(1)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친환경 조업 MSC인지여부	비인지	(11)	9.1	0.0	9.1	36.4	45.5	9.1	27.3	27.3	36.4
	인지	(9)	22.2	11.1	11.1	22.2	33.3	11.1	44.4	22.2	22.2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없음	(7)	28.6	0.0	14.3	42.9	14.3	28.6	14.3	42.9	14.3
	관심있음, 대비못함	(8)	0.0	0.0	0.0	12.5	87.5	0.0	25.0	12.5	62.5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0.0	0.0	50.0	50.0	0.0	0.0	100.0	0.0	0.0
	인증신청완료	(3)	33.3	33.3	0.0	33.3	0.0	0.0	66.7	33.3	0.0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11.1	0.0	11.1	33.3	44.4	11.1	33.3	22.2	33.3
	수산물가공	(3)	0.0	0.0	0.0	66.7	33.3	0.0	33.3	66.7	0.0
	수산물류	(3)	0.0	0.0	0.0	66.7	33.3	0.0	33.3	66.7	0.0
	수산물수출	(10)	10.0	10.0	10.0	60.0	10.0	0.0	50.0	50.0	0.0
매출액	10억 미만	(3)	0.0	33.3	0.0	0.0	66.7	0.0	0.0	33.3	66.7
	10억~50억 미만	(3)	33.3	0.0	33.3	33.3	0.0	33.3	33.3	33.3	0.0
	50억~100억 미만	(4)	25.0	0.0	0.0	0.0	75.0	25.0	0.0	25.0	50.0
	100억 이상	(9)	0.0	0.0	11.1	55.6	33.3	0.0	55.6	22.2	22.2
	공개 거부	(1)	100.0	0.0	0.0	0.0	0.0	0.0	100.0	0.0	0.0
종사자수	20명 미만	(10)	30.0	10.0	10.0	20.0	30.0	20.0	20.0	30.0	30.0
	20~29명	(2)	0.0	0.0	0.0	50.0	50.0	0.0	50.0	0.0	50.0
	30~49명	(2)	0.0	0.0	0.0	0.0	100.0	0.0	50.0	0.0	50.0
	50~99명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100~199명	(3)	0.0	0.0	0.0	66.7	33.3	0.0	33.3	33.3	33.3
	200인이상	(2)	0.0	0.0	50.0	50.0	0.0	0.0	100.0	0.0	0.0

〈표 3-12〉 국제 인증제도 대비 어려움(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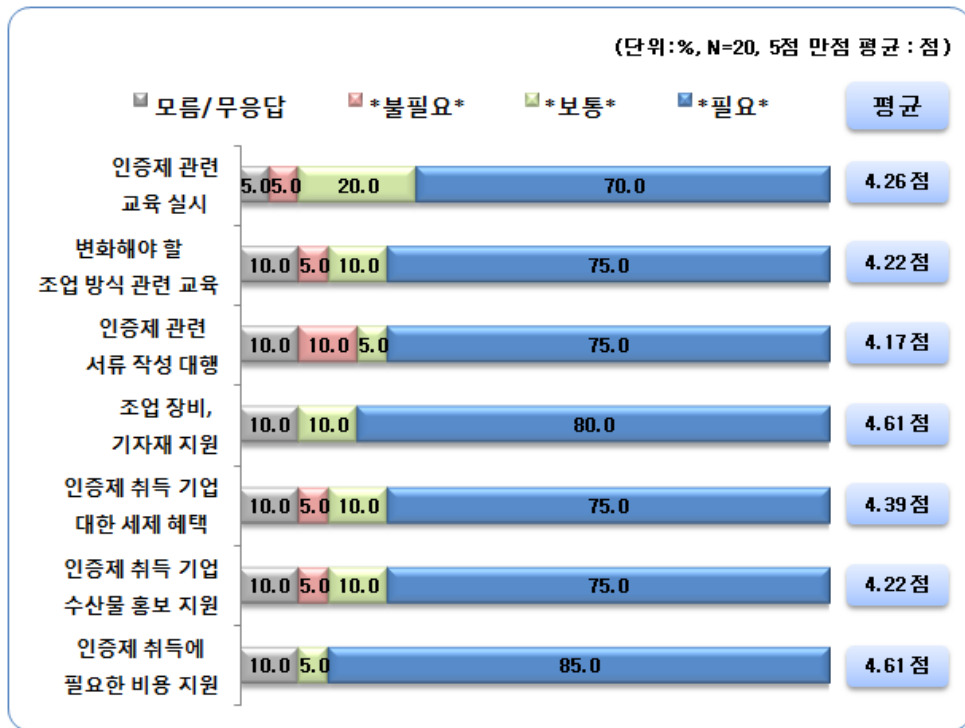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인증제 취득을 위한 설비/장비 부족					인증 취득을 위한 조업 방식 개선			
			해당 없음	약간 어려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해당 없음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전체		(20)	15.0	20.0	30.0	35.0	15.0	10.0	10.0	30.0	35.0
회사위치	수도권	(4)	0.0	25.0	50.0	25.0	0.0	25.0	25.0	25.0	25.0
	부산	(15)	20.0	13.3	26.7	40.0	20.0	6.7	6.7	26.7	40.0
	울산/경남	(1)	0.0	100.0	0.0	0.0	0.0	0.0	0.0	100.0	0.0
친환경 조업 MSC인지여부	비인지	(11)	9.1	18.2	27.3	45.5	9.1	0.0	9.1	36.4	45.5
	인지	(9)	22.2	22.2	33.3	22.2	22.2	22.2	11.1	22.2	22.2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없음	(7)	28.6	14.3	28.6	28.6	28.6	0.0	14.3	28.6	28.6
	관심있음, 대비못함	(8)	0.0	12.5	25.0	62.5	0.0	0.0	0.0	37.5	62.5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0.0
	인증신청완료	(3)	33.3	33.3	33.3	0.0	33.3	33.3	0.0	33.3	0.0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11.1	16.7	33.3	38.9	11.1	5.6	11.1	33.3	38.9
	수산물가공	(3)	0.0	0.0	33.3	66.7	0.0	0.0	0.0	33.3	66.7
	수산물류	(3)	0.0	0.0	33.3	66.7	0.0	0.0	0.0	33.3	66.7
	수산물수출	(10)	10.0	20.0	50.0	20.0	10.0	20.0	10.0	40.0	20.0
매출액	10억 미만	(3)	0.0	33.3	33.3	33.3	0.0	33.3	0.0	33.3	33.3
	10억~50억 미만	(3)	33.3	33.3	33.3	0.0	33.3	0.0	33.3	33.3	0.0
	50억~100억 미만	(4)	25.0	0.0	0.0	75.0	25.0	0.0	0.0	0.0	75.0
	100억 이상	(9)	0.0	22.2	44.4	33.3	0.0	11.1	11.1	44.4	33.3
	공개 거부	(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종사자수	20명 미만	(10)	30.0	20.0	20.0	30.0	30.0	10.0	10.0	20.0	30.0
	20~29명	(2)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30~49명	(2)	0.0	50.0	0.0	50.0	0.0	0.0	0.0	50.0	50.0
	50~99명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199명	(3)	0.0	0.0	33.3	66.7	0.0	33.3	0.0	0.0	66.7
	200인이상	(2)	0.0	50.0	50.0	0.0	0.0	0.0	50.0	50.0	0.0

4) 원양업계의 대정부 지원 수요

수산 분야 국제 인증제도 관련 희망 정부 지원에 대해 조사결과, 평균 기준 ‘인증제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조업장비, 기자재 지원’이 4.61점, ‘인증제 취득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4.39점, ‘인증제 관련 교육 실시’ 4.2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원양업계의 대정부 지원 수요



동 조사 항목은 우리 원양어업체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방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지원 요청 내용은 글로벌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었다. 또한, 이에 따라 조업 장비나 기자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원양업계의 대정부 지원 수요

(단위 : %)

구분		사례수	인증제 관련 교육 실시				변화해야 할 조업 방식 관련 교육			
			모름 무응답	불필요	보통	필요	모름 무응답	불필요	보통	필요
전체		(20)	5.0	5.0	20.0	70.0	10.0	5.0	10.0	75.0
회사위치	수도권	(4)	0.0	0.0	0.0	100.0	0.0	25.0	0.0	75.0
	부산	(15)	6.7	6.7	26.7	60.0	13.3	0.0	13.3	73.3
	울산/경남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친환경 조업 MSC인지여부	비인지	(11)	0.0	0.0	18.2	81.8	0.0	0.0	18.2	81.8
	인지	(9)	11.1	11.1	22.2	55.6	22.2	11.1	0.0	66.7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없음	(7)	14.3	0.0	28.6	57.1	14.3	0.0	28.6	57.1
	관심있음, 대비못함	(8)	0.0	0.0	12.5	87.5	0.0	0.0	0.0	100.0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0.0	0.0	0.0	100.0	0.0	50.0	0.0	50.0
	인증신청완료	(3)	0.0	33.3	33.3	33.3	33.3	0.0	0.0	66.7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5.6	0.0	16.7	77.8	5.6	5.6	11.1	77.8
	수산물가공	(3)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수산물류	(3)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수산물수출	(10)	0.0	10.0	10.0	80.0	10.0	10.0	0.0	80.0
매출액	10억 미만	(3)	0.0	0.0	66.7	33.3	0.0	0.0	0.0	100.0
	10억~50억 미만	(3)	33.3	0.0	0.0	66.7	33.3	0.0	0.0	66.7
	50억~100억 미만	(4)	0.0	0.0	25.0	75.0	0.0	0.0	25.0	75.0
	100억 이상	(9)	0.0	0.0	11.1	88.9	0.0	11.1	11.1	77.8
	공개 거부	(1)	0.0	100.0	0.0	0.0	100.0	0.0	0.0	0.0
종사자수	20명 미만	(10)	10.0	10.0	20.0	60.0	20.0	0.0	10.0	70.0
	20~29명	(2)	0.0	0.0	50.0	50.0	0.0	0.0	0.0	100.0
	30~49명	(2)	0.0	0.0	50.0	50.0	0.0	0.0	50.0	50.0
	50~99명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199명	(3)	0.0	0.0	0.0	100.0	0.0	33.3	0.0	66.7
	200인이상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표 3-13〉 원양업계 대정부 지원 수요(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인증제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조업 장비, 기자재 지원			
		모름 무응답	불필요	보통	필요	모름 무응답	불필요	보통	필요
전체	(20)	10.0	10.0	5.0	75.0	10.0	10.0	80.0	75.0
회사위치	수도권	(4)	0.0	0.0	0.0	100.0	0.0	0.0	100.0
	부산	(15)	13.3	13.3	6.7	66.7	13.3	13.3	73.3
	울산/경남	(1)	0.0	0.0	0.0	100.0	0.0	0.0	100.0
친환경 조업 MSC인지역부	비인지	(11)	9.1	9.1	9.1	72.7	0.0	18.2	81.8
	인지	(9)	11.1	11.1	0.0	77.8	22.2	0.0	77.8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없음	(7)	28.6	0.0	14.3	57.1	14.3	28.6	57.1
	관심있음, 대비못함	(8)	0.0	12.5	0.0	87.5	0.0	0.0	100.0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0.0	0.0	0.0	100.0	0.0	0.0	100.0
	인증신청완료	(3)	0.0	33.3	0.0	66.7	33.3	0.0	66.7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11.1	5.6	5.6	77.8	5.6	11.1	83.3
	수산물가공	(3)	0.0	0.0	0.0	100.0	0.0	0.0	100.0
	수산물류	(3)	0.0	0.0	0.0	100.0	0.0	0.0	100.0
	수산물수출	(10)	0.0	10.0	0.0	90.0	10.0	0.0	90.0
매출액	10억 미만	(3)	0.0	0.0	0.0	100.0	0.0	0.0	100.0
	10억~50억 미만	(3)	33.3	0.0	0.0	66.7	33.3	0.0	66.7
	50억~100억 미만	(4)	0.0	25.0	25.0	50.0	0.0	25.0	75.0
	100억 이상	(9)	11.1	0.0	0.0	88.9	0.0	11.1	88.9
	공개 거부	(1)	0.0	100.0	0.0	0.0	100.0	0.0	0.0
종사자수	20명 미만	(10)	10.0	20.0	10.0	60.0	20.0	10.0	70.0
	20~29명	(2)	0.0	0.0	0.0	100.0	0.0	0.0	100.0
	30~49명	(2)	50.0	0.0	0.0	50.0	0.0	50.0	50.0
	50~99명	(1)	0.0	0.0	0.0	100.0	0.0	0.0	100.0
	100~199명	(3)	0.0	0.0	0.0	100.0	0.0	0.0	100.0
	200인이상	(2)	0.0	0.0	0.0	100.0	0.0	0.0	100.0

〈표 3-13〉 원양업계의 대정부 지원 수요(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인증제 취득 기업 대한 세제 혜택				인증제 취득 기업 수산물 홍보 지원			
		모름 무응답	불필요	보통	필요	모름 무응답	불필요	보통	필요
전체	(20)	10.0	5.0	10.0	75.0	10.0	5.0	10.0	75.0
회사위치	수도권	(4)	0.0	0.0	25.0	75.0	0.0	0.0	100.0
	부산	(15)	13.3	6.7	6.7	73.3	13.3	6.7	13.3
	울산/경남	(1)	0.0	0.0	0.0	100.0	0.0	0.0	100.0
친환경 조업 MSC인지여부	비인지	(11)	9.1	0.0	9.1	81.8	9.1	0.0	18.2
	인지	(9)	11.1	11.1	11.1	66.7	11.1	11.1	0.0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없음	(7)	28.6	0.0	14.3	57.1	28.6	0.0	28.6
	관심있음, 대비못함	(8)	0.0	0.0	0.0	100.0	0.0	0.0	100.0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0.0	0.0	50.0	50.0	0.0	0.0	100.0
	인증신청완료	(3)	0.0	33.3	0.0	66.7	0.0	33.3	0.0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11.1	0.0	11.1	77.8	11.1	0.0	11.1
	수산물가공	(3)	0.0	0.0	0.0	100.0	0.0	0.0	33.3
	수산물류	(3)	0.0	0.0	0.0	100.0	0.0	0.0	33.3
	수산물수출	(10)	0.0	10.0	10.0	80.0	0.0	10.0	10.0
매출액	10억 미만	(3)	0.0	0.0	0.0	100.0	0.0	0.0	100.0
	10억~50억 미만	(3)	33.3	0.0	0.0	66.7	33.3	0.0	0.0
	50억~100억 미만	(4)	0.0	0.0	25.0	75.0	0.0	0.0	25.0
	100억 이상	(9)	11.1	0.0	11.1	77.8	11.1	0.0	11.1
	공개 거부	(1)	0.0	100.0	0.0	0.0	0.0	100.0	0.0
종사자수	20명 미만	(10)	10.0	10.0	10.0	70.0	10.0	10.0	10.0
	20~29명	(2)	0.0	0.0	0.0	100.0	0.0	0.0	100.0
	30~49명	(2)	50.0	0.0	0.0	50.0	50.0	0.0	0.0
	50~99명	(1)	0.0	0.0	0.0	100.0	0.0	0.0	100.0
	100~199명	(3)	0.0	0.0	33.3	66.7	0.0	0.0	33.3
	200인이상	(2)	0.0	0.0	0.0	100.0	0.0	0.0	100.0

〈표 3-13〉 원양업계의 대정부 지원 수요(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인증제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모름/ 무응답	불필요	필요
전체		(20)	10.0	5.0	85.0
회사위치	수도권	(4)	0.0	0.0	100.0
	부산	(15)	13.3	6.7	80.0
	울산/경남	(1)	0.0	0.0	100.0
친환경 조업 MSC인지여부	비인지	(11)	9.1	9.1	81.8
	인지	(9)	11.1	0.0	88.9
국제 인증제도 관심 및 대비	관심없음	(7)	28.6	14.3	57.1
	관심있음, 대비못함	(8)	0.0	0.0	100.0
	관심있음, 인증신청못함	(2)	0.0	0.0	100.0
	인증신청완료	(3)	0.0	0.0	100.0
사업분야	원양조업	(18)	11.1	5.6	83.3
	수산물가공	(3)	0.0	0.0	100.0
	수산물류	(3)	0.0	0.0	100.0
	수산물수출	(10)	0.0	0.0	100.0
매출액	10억 미만	(3)	0.0	0.0	100.0
	10억~50억 미만	(3)	33.3	0.0	66.7
	50억~100억 미만	(4)	0.0	25.0	75.0
	100억 이상	(9)	11.1	0.0	88.9
	공개 거부	(1)	0.0	0.0	100.0
종사자수	20명 미만	(10)	10.0	10.0	80.0
	20~29명	(2)	0.0	0.0	100.0
	30~49명	(2)	50.0	0.0	50.0
	50~99명	(1)	0.0	0.0	100.0
	100~199명	(3)	0.0	0.0	100.0
	200인이상	(2)	0.0	0.0	100.0

제4장 글로벌인증제(MSC)의 도입 방안

지금까지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우리 원양어업의 위기와 관련한 글로벌인증제(MSC)와의 관계, 도입 대상인 원양업체의 MSC에 대한 인식 및 지원분야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우리 원양업체에 MSC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2016년 6월 현재, 한성기업을 제외한 국내 원양어업체 중에서 일부는 MSC 인증을 신청하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고민 중에 있다. 그러나 앞의 연구내용(원양어업의 위기와 MSC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관학연이 공통으로 동의하고 있되, 이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책 도입에 있어서는 초기 진입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동 장에서는 글로벌인증제(MSC)를 우리 원양어업에 도입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적인 추진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제1절 기본방향

1. 원양어업으로의 우선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의 어업은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양어업은 MSC 도입의 우선적인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위기의 원양어업을 위한 돌파구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원양어업의 구조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쇠퇴 중이다. 앞으로 MSC의 도입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면, 위기 속의 우리 원양어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둘째, 원양어획물은 주로 대선진국 수출상품이다. 다랑어는 주로 태국으로 수출되어 통조림으로 가공 후 EU, 북미 등의 선진국으로 수출된다. 원양에서 어획된 오징어도 일부 국내 반입을 제외하면, 스페인이나 중국(원료)으로 수출된다. 중국으로 수출된 오징어는 다시 EU 등으로 수출된다. 즉, MSC는 주로 선진국의 수요처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어업보다 MSC의 영향권 내에 이미 진입해 있다.

셋째, 원양어업은 우리 EEZ 외에서의 조업활동이므로 인증 도입과정이 상대적으로 길다. 원양어업은 우리 EEZ 외인 타국의 EEZ 내나 공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원양어업이 진출한 해역은 다양하며, 그 해역별로 해당국, 국제지역수산기구 혹은 이들에 준하는 거버넌스의 관리를 받고 있다. 즉, MSC 인증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어장, 수산자원 관리정책, 생태계 조건 등이 조사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국내 어업보다 인증조사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2. 목표

이러한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우리 원양어업에 MSC 인증제 도입은 국제적인 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MSC 도입의 목표는 중단기, 장기로 구분해야 한다.

첫째, MSC 도입의 중단기 목표는 원양어획물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이다. 주로 수출비중이 높은 다랑어와 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MSC 도입을 유도하여, MSC의 확산 중심지역인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 시장의 프리미엄 시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MSC의 도입이 확산 과정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MSC 도입의 장기 목표는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원양어업체 수는 2015년에 48개로 나타났다. 2012년 68개에서 20개 업체가 줄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 원양어업의 존속 가능성은 수년 후에 매우 희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MSC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를 포함하면, 우리 원양어업의 존속(지속가능성)은 실로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제2절 지원근거

원양어업의 MSC 도입에 대한 지원근거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보조와 융자 조항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동법 제26조 1항에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각 호에는 사업을 추진을 위한 조사비용(동법 제26조 1항 1호),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에 사용되는 비용(동법 제26조 1항 2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동법 제26조 1항 2호). 특히, 동법 제26조 1항의 2호는 MSC 도입의 법적근거로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중법 제26조 2항에서는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는 어선(운반선 포함)어구의 매입 및 시설의 설치와 운영 자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와 매입 자금,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²³⁾ MSC의 중단지적 목표를 감안한다면,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어장 자원조사 등은 MSC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²³⁾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원양산업 관련 분야), 2012.

〈표 4-1〉 원양어업으로 MSC 도입의 법적 근거

조항	내용	MSC 관계
제1항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장기적목표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2항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중단기 목표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 법제처,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3001호, 2016. 1. 6.(일부개정, 시행 2015. 7.7.)

제3절 사업내용

원양어업에 MSC를 도입하여 조업에 임하는 과정은 크게 MSC 인증제 도입 지원과 그 지원에 따른 사후조치 지원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MSC 도입 지원

MSC의 도입 지원은 MSC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지원이 핵심이다.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MSC의 인증은 조업 전반에 걸쳐 어장의 수산자원 및 그

관리 조사에서 어선노동 환경, 어선의 상태 및 관리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MSC 인증 비용은 약 5만 ~ 20만 달러(USD)가 소요되는 데, 기간은 약 1년 정도(짧게는 6개월, 길게는 18개월) 걸린다.

국내의 MSC 인증 대행업체의 자문 결과, 우리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수산자원, 어장, 어선, 조업관리 등의 조사와 국내 기업과 정부의 관리 조치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일반해면어업의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를 각각의 사례로 나타내는 것은 실제 비교견적을 내보야 함으로 동 보고서에서는 자문의 내용을 받아 원양어업체 당 15만달러(USD)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법적 근거에 따라서 MSC 인증제 도입 지원은 보조와 융자로 진행이 가능하다. 단, 보조와 융자라고 하더라도 보조율은 국내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 등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0%를 적용하였다.

대상 기업 수는 2015년 원양어업체 48개를 기준으로 하며, 5년 이내에 모두 MSC 도입을 가능토록 한다.

〈표 4-2〉 MSC 인증제 도입의 전제

항목	내용	비고
인증비용	150,000달러(USD)/업체 (1\$ = 1,100원)	물리적 거리, 이원적 조사(해외어장과 국내본사)
인증기간	1년(12개월)	
업체 수	48개 업체	2015년 통계청 통계
정책기간	5년	매년 10개(5년차 8개)
지원율	보조율 30%, 50%	수혜자 부담원칙 적용

이에 따라서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율 30%를 적용할 때, 정부지원금 총액은 23억 7,600만 원이 소요된다. 동 전제 하에서 업체별로는 4,950만 원이 지원된다.

$$\begin{aligned}
 \text{정부지원액} &= (\text{업체당 MSC 도입 비용} \times \text{원/달러 환율}) \times \text{업체 수} \times \text{보조율(\%)} \\
 &= (\$150,000 \times 1,100\text{원/\$}) \times 48\text{개} \times 30\% \\
 &= 23\text{억 } 7,600\text{만 원}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업체당 정부지원액} &= (\text{업체당 MSC 도입 비용} \times \text{원/달러 환율}) \times \text{보조율(\%)} \\
 &= (\$150,000 \times 1,100\text{원/\$}) \times 30\% \\
 &= 4,950\text{만 원}
 \end{aligned}$$

이를 5년 동안(단, 마지막 연도는 8개 업체) 지원할 경우에는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4억 9,500백만 원이 소요되며, 5년차에 3억 9,600만 원이 들어간다. 동 사업은 단기적으로 국내 원양어업체의 MSC 인증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일몰제를 적용한다.

〈표 4-3〉 MSC 인증제 지원액의 연차별 추이

연차	지원액(만 원)	업체 수
1년차	49,500	10
2년차	49,500	10
3년차	49,500	10
4년차	49,500	10
5년차	39,600	8
합계	237,600	48

이 지원액은 지원율의 정도, 지원의 형태(융자 혹은 보조, 융자+보조), 업체당 MSC 도입 비용의 가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 MSC 도입에 따른 사후조치

MSC의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양어업체의 어선 구조, 조업 관련 시설이 MSC 인증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선의 연령, 어구어법, 어선 구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 문제는 우리 원양어업체가 MSC를 도입하는 걸림돌

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MSC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솔루션은 원양어업과 관련한 기존 정책과의 연관성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의 「2016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에 따르면, 원양어업과 관련한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89억 원이었다. 2015년에 비해 대부분 줄어들었는데, 특히 서부 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축은 2016년에 일몰되었고, 원양어선현대화사업(용자)도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표 4-4〉 원양어업 관련 해양수산부 예산(2016년)

(단위 : 백만 원)

회계	세부사업	‘15본예산	‘16예산
농특	원양어업 활성화	4,960	4,791
농특	원양어선 감독관 관리체계 구축(FMC)	2,133	1,497
농특	서부아프리카원양어선 감축	9,900	-
기금	원양어업관리회사(용자)	100	-
기금	원양어선현대화사업(용자)	23,400	11,700
기금	해외수산시설투자(용자)	970	900
합계		41,463	18,888

자료 : 해양수산부, 2016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2016

이 중에서 우리 원양어업체가 MSC 도입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점은 원양어선의 현대화이다. MSC의 인증 과정에 주요한 원칙이 바로 지속성·조업 안전·친생태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원양어업체가 MSC 도입 과정에서 어선 구조나 어구 변경 등의 애로가 발생할 때, 원양어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등의 조치가 정책 솔루션이 될 수 있다.

3. MSC 도입제 공동 신청 도모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2016년을 기준으로 태평양(남태평양, 베링 해),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의 4대 해역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MSC는 목표대상 어종이나 어업의 인증조사에서 지역수산기구, 연안국 정부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원양어업은 해역별 주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관할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단, 베링 해는 러시아 정부의 통제) 어업체가 어장과 관할 기구(본국 정부 제외)가 공통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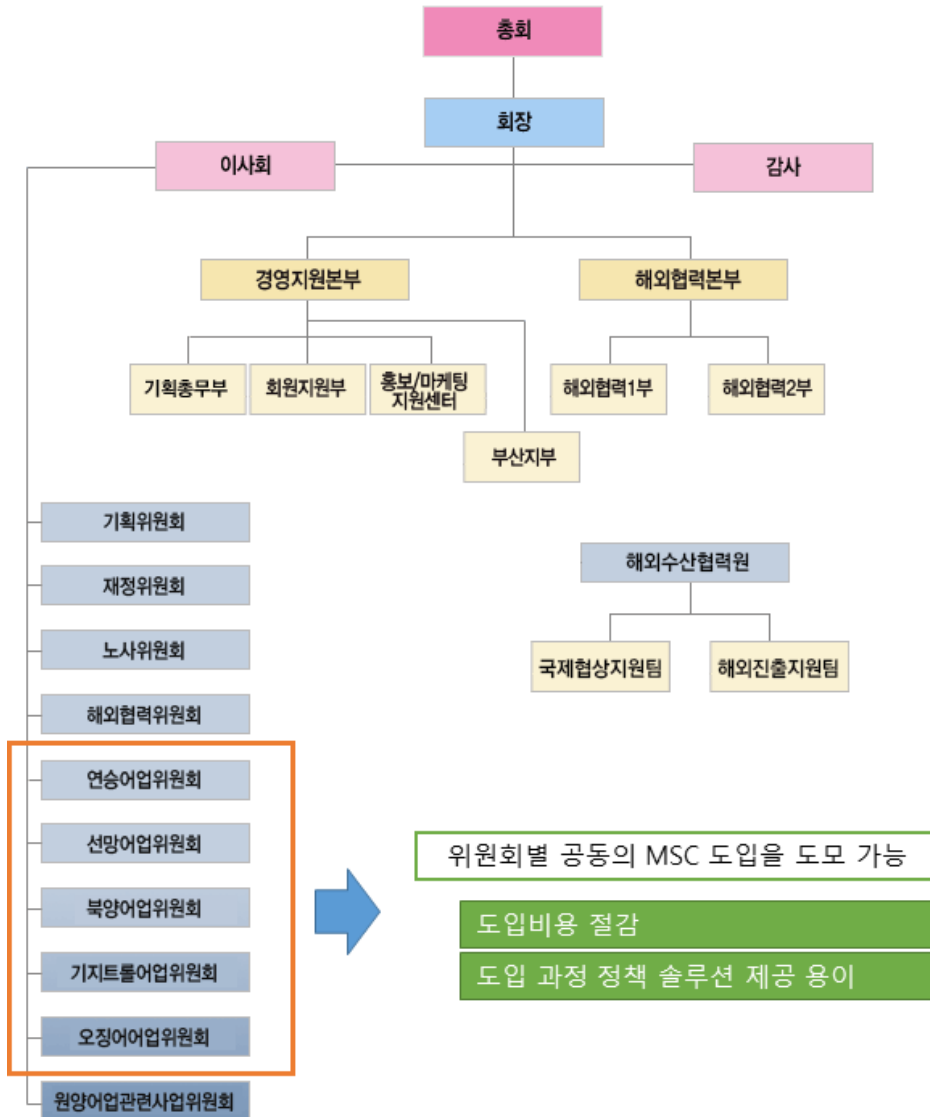
러시아 EEZ 내의 베링 해에서 명태 조업을 하는 A 기업이 MSC 인증 요청을 하면, 인증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의 수산자원, 조업 등의 관리를 조사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같은 어장에서 같은 어종을 조업하는 B 기업이 함께 신청을 하게 되면, 공통적인 조사분석은 공동의 비용 처리로 가능하다. 물론, 개별 기업의 내부적인 관리 등은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²⁴⁾

뿐만 아니라 MSC 인증을 받은 기업의 해당 해역에 관한 수산자원, 조업관리 등의 내용을 정부 혹은 관련기관이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MSC 인증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원양어업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양어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는 수역별로 인증 과정의 공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동 신청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원양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원양산업협회는 그 조직에서 해역별, 어업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승어업위원회, 선망어업위원회, 북양어업위원회, 기지트롤어업위원회, 오징어어업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를 기준으로 하여 공동의 MSC 신청을 도모할 경우에 이에 따른 도입 경비 절감,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후처리 정책 등을 지원하는 데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4) 이는 국내 MSC 대형업체인 유니언컨트롤로부터의 자문의뢰 내용임

〈그림 4-1〉 원양산업협회 조직도와 MSC 공동도입의 효과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osfa.org>)

4. 기대효과

1) 원양어획물의 수출 선점 효과: 중단기 관점

원양 생산량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19.8% 줄어들면서 약 46만 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원양어업의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에 수출액은 2,297억 원에서 3,004억 원으로 오히려 30.7% 늘어났다. 그러한 이유는 원양어획물 중에서 수출어종인 다랑어류의 생산이 같은 기간 5.3% 늘고 글로벌 수산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양어업의 수출 기여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MSC의 확산을 고려한다면, 불투명하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MSC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어업회사들이라기보다는 글로벌유통업체, 글로벌식품업체 등과 같은 바이어(실수요처)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거래가 장기 지속적이며, 프리미엄에 따라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원양어업이 MSC를 도입하게 된다면, 태평양 수역 다랑어 경쟁조업국(중국, 일본, 대만 등)보다 앞서서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다랑어는 태국 등의 통조림 공장에 원료로 보내고 있지만, MSC에서는 원료의 조달까지도 연계하여 인증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한 MSC의 우선 도입은 중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원양어획물 수출 가격을 높이면서 감소하는 전체 원양어획물의 생산액을 회복 혹은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 원양어업의 지속성: 장기적 관점

지금의 우리 원양어업은 급속한 기업체 수의 감소, 원양어선의 급감, 생산량 감소에 더불어 진출 해역마저 줄어들고 있다.²⁵⁾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세계의 주요 선진국 시장의 유통기업, 가공기업, 요식 및 숙박기업과 같은 실수

25) 서부 아프리카 원양어업은 감척으로 우리 원양어업이 퇴출되었다.

요자(바이어)들은 MSC를 도입한 원어 혹은 수산가공품을 원하고 있다. 지금은 MSC 인증의 규모가 전 세계 수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할 수 있지만, HACCP이나 EU 등록인증제가 그러했듯이 장기적으로 MSC는 우리 원양어 업체에 그 인증 여부에 따라서 모라토리엄과 같은 선언을 내리는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측면에서 MSC는 장기적으로 원양어업의 쇠퇴를 저지하고, 지속성으로 연계해주는 외생 변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결 론

대한민국의 원양어업은 1960년대 진출을 시작하여 1970~8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우리의 초기 경제성장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산업이기도 했으며, 우리 국민에게 수산물을 통해 단백질을 공급하는 2대 기둥(70~90년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 초반 이후의 국제 정세(EEZ, 해양법 등)는 우리 원양어업의 축소를 구조화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산자원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관리 강화 등으로 더 이상 원양어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오히려 현재 원양어업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다.²⁶⁾

그러한 와중에 2010년대에는 주요 선진국 수산물 시장(수요자)에서 수산물에 대한 위생과 품질 뿐만 아니라 ‘공정(친환경·친지구적·친생태)’이라는 인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수산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도국의 원양어업체들은 이러한 선진국 시장 중심의 글로벌인증제(MSC 등)가 선진국의 어업기업을 위한 장벽으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실제 MSC 등록을 하거나 그러한 인증 수산물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유통업체, 식품업체, 요식업 및 호텔업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니즈가 수산물 생산 측면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원양어업체들에게 MSC는 기업들 스스로 인식하든 못하든 대외적인 위협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에 동 연구는 우리 원양어업이 이미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증

26) 이러한 대표적인 정책이 원양어업에서 원양산업화로 전환하는 정책들임

제 중에서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MSC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인증제에는 MSC 외에 HACCP, ISO 시리즈, EU등록인증제 등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공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포함하고 확장하고 있는 MSC를 글로벌 인증제의 대표 격으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HACCP나 ISO는 이미 우리나라의 식품제조분야에 거의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개념적으로 위생, 품질, 생산시스템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MSC와 차이가 있어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포함했다.

한편, 우리나라 원양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SC에 대한 인식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다수의 원양어업체가 소규모(1사 1척)인 경우가 많고, MSC의 확장성이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낮은 인식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SC에 대한 설명 후, 그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원양어업체들은 필요하다는 대답이 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원양어업체들은 MSC 인증을 위한 비용이 애로점이 된다는 답변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MSC 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비용 발생 문제(어선 개조, 어구 변경 등)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의 원양어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다소 완화는 되고 있으나 여전히 200%를 넘는 부채비율은 MSC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우리 원양어업이 과거에서부터 우리 국민에게 해외의 수산물을 통해 단백질을 공급해 왔다는 점과 앞으로도 그러한 단백질을 공급을 통해 우리 수산물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원양어업의 존속 혹은 지속성을 우리 정부에게 남아 있는 과제이다.

이에 우리 원양어업체들의 글로벌 인증제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조 혹은 융자를 통해 MSC 도입을 우선 지원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어선 구조 변경, 어구 전환 등)는 우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존 정책에 연계하는 것이 정책적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MSC 도입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조 30%를 기준으로 48개 원양어업체를 MSC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정책비용은 약 24

억 원이었다. 또한 원양어선현대화 사업에 MSC와 같은 글로벌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도입한 기업을 우선 참여시키는 정책 연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글로벌 수산시장에서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즉 선진국의 수요자 정보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 원양어업 정책은 공급을 위한 정책 일변도였다. 이번 MSC 도입 정책은 글로벌 수산시장에서 우리 원양어업이 수요자 주도 시장에 적응하는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김창봉, 「식품산업의 글로벌 인증과 파트너십, 식품품질관리, 고객관계관리 간의 영향관계가 기업의 사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4(5),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3.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안전시스템 구축동향과 전망」, 2012
- 법제처,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3001호, 2016. 1. 6.(일부개정, 시행 2015. 7.7.
- 서종석, 「수산양식장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협동과정, 공학박사 학위논문, 2015.
-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증제도. 2016.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요구자료, 2009
- 장홍석 외, 「수출통합인증제 이행과 국가브랜드 개발 및 운영방안 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2015. 1
- 통계청 KOSIS, 어업생산동향
- 통계청 KOSIS, 원양어업통계조사, 손익의 관계비율
- 통계청 KOSIS, 원양어업통계조사,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연감, 각 연도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5.
- 해양수산부, 해외수산물 인증제도 국내 적용방안 연구, 2016.
- 해양수산부, 「2016년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2016
- KMI,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CODEX 등록 필요성과 과제」, 월간 KMI 수산동향, 수산포커스, 2010
- KMI, 2016 세계전망대회: 2016 원양산업의 전망과 이슈, 2016

[국외 문헌]

MSC, Objections Procedure, 2012.

MSC, Get certified.

MSC, MSC Chain of Custody Standard, 2015.

MSC, Annual Report 2015-16, 2016.

STEFANO PONTE, The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and the Making of a Market for
'Sustainable Fish' , JOURNAL OF AGRARIAN CHANGE APRIL 2012, 2012.

CODEX 홈페이지(<http://www.CODEXalimentarius.org/>)

ISO2200 홈페이지(<http://www.iso.org>)

[온라인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go.kr/)

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www.foodcert.kfri.re.kr)

한국원양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kosfa.org>)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

부록

〈설문지〉 원양업체 대상 글로벌 인증제 인지도 및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입니다. 본 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의뢰를 받아, 원양업체 분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조업 인증제도인, MSC 인증제 도입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SC 인증제란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유지, 환경영향 최소화 등의 기준을 갖추기 위한 국제 표준 인증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원양업체들이 MSC 인증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016. 10

SQ1	귀사는 현재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조사중단	
SQ2	귀하의 기업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1) 수도권 4) 충청권 7) 강원/제주권	2) 부산 5) 전라권	3) 울산/경남 6) 경북권

Q01. 귀사께서는 친환경조업 인증제도인 MSC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이번에 처음 알게 됨
- ② 들어는 보았다
- ③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 최근 주요 선진국의 수산물 시장에서는 MSC 등과 같은 글로벌 인증제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양어업의 수산물 수

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분야의 글로벌 인증제는 단순히 상품의 위생, 안전, 품질 등의 과거 기준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조업 등과 같은 수산 환경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인증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수산물 유통업체들은 글로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의 구매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원양어업 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IUU 어업국 강화 여건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원양어업의 MSC 인증제 도입이 논의 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02. 귀사께서는 수산 분야의 국제 인증제도(MSC 등)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고 대비하고 계십니까?

- ① 관심이 없다
- ② 관심은 있지만 대비는 하지는 못하고 있다
- ③ 관심이 많고, 대비하고 있지만 인증 신청은 하지 못하였다
- ④ 현재 인증 신청을 했다

Q02-1. 귀사께서는 국제 인증제도(MSC 등) 도입 계획이 필요하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 2순위 ()
- ① 글로벌 시장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 ② 비인증 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 ③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해
 - ④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기에
 - ⑤ 다른 기업들도 인증 취득을 하니까
 - ⑥ 도입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 ⑦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03. 귀사에서는 수산 분야의 국제 인증제도(MSC 등)에 대비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각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 류	해당 없음	어려움 없음	약간 어려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부재	①	②	③	④	⑤
(2) 관련 해외 법규정에 대한 정보 부재	①	②	③	④	⑤
(3) 인증제 취득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인증제 취득을 위한 비용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인증제 취득을 위한 설비/장비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인증 취득을 위한 조업 방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Q04. 그렇다면, 수산 분야의 국제 인증제도(MSC 등) 취득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 류	전혀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1) 인증제 관련 교육 실시 (해외 법제도 관련 동향 파악 등)	①	②	③	④	⑤	⑥
(2) 변화해야 할 조업 방식 관련 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3) 인증제 관련 서류 작성 대행	①	②	③	④	⑤	⑥
(4) 조업 장비, 기자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5) 인증제 취득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①	②	③	④	⑤	⑥
(6) 인증제 취득 기업 수산물 홍보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7) 인증제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PART G. 응답 업체 정보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정보입니다. 응답하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가 됩니다.

DQ1. 귀사께서 주로 취급 하시는 수산물 종류와 주요 수출 상대국을 말씀해주십시오.(3가지)

수출 수산물 종류 : (), (), ()

수출 상대국 : (), (), ()

DQ2. 귀사께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① 원양조업
- ② 수산물 가공
- ③ 수산물류(냉동 냉장 창고 등)
- ④ 수산물 수출
- ⑤ 기타

DQ3. 귀 업체의 상시근로자(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 ① 20명 미만 ② 20~29명 ③ 30~49명 ④ 50~99명
- ⑤ 100~199명 ⑥ 200명 이상

DQ4. 귀 업체의 연간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억원 미만 ② 1억~3억 미만
- ③ 3억~5억 미만 ④ 5억~10억 미만
- ⑤ 10억~20억 미만 ⑥ 20억~30억 미만
- ⑦ 30억~50억 미만 ⑧ 50억~100억 미만
- ⑨ 100억~200억 미만 ⑩ 200억~300억 미만
- ⑪ 300억~500억 미만 ⑫ 500억~1천억 미만
- ⑬ 1천억 이상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양어업 글로벌인증제 도입방향 연구

2016年 11月 28日 印刷

2016年 11月 30日 發行

편집검
발행인

양 창 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전 화

051-797-4800 FAX :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주)비전테크시스템즈 Tel : 02-3432-7132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02-394-0337

정가 15,000원

